

1988년 10월 10일 창간 제 9789호 대표전화 062-606-7700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mdilbo.com

(음력 12월 16일)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 달빛고속철, 마침내 영호남 번영 향해 달린다

국회 통과… 예타없이 사업 추진  
광주~대구 198.8km 2030년 완공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 현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기재부가 특별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여야가 신속한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고속철도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과를 광주의 '빛'을 딴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자치체와 10개 기초 자치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km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이는 총사업비 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강병운기자 bwj2388@mdilbo.com ▶관련기사 3면

알립니다

### 무등일보 17기 독자권익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 13명 "좋은 언론 함께 만들겠다"



김상훈 김유빈 김현성 박광구 박정열 장은백 정다은

이기표 이정민 정명환 조선익 조영국 한은미

무등일보 독자권익위원회 17기가 출범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들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낌없이 내놓고, 신문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역할할 예정입니다.

올 2월부터 활동하게 되는 무등일보 17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기표 광주대 특임교수입니다. 16기 독자위원으로 활동

했던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박정열 대동고 이사장·장은백 변호사·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조영국 서영대 교수·한은미 전남대 교수 17기를 이어 가고,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박광구 광주미협회장·이정민 커뷰대표·정다은 시의원·정명환 건축사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17기 독자권익위원회와 함께 무등일보는 앞으로 지역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지역 정론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히하겠습니다.

#### 제17기 편집자문위원회 명단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  
김현성 광주경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박광구 광주미협회장  
박정열 대동고 이사장

이기표 광주대 특임교수  
이정민 커뷰대표  
장은백 변호사  
정다은 시의원  
정명환 건축사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SRB무등일보



무등산 설경과 파란 하늘 막바지 한파에 종일 영하권 날씨를 보인 25일 국립공원 무등산에 나흘간 내린 눈이 쌓여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한 가운데 파란 하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임정욱기자 jo6605@mdilbo.com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내일부터 시행

'유예연장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실패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

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

서 당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개에서는 오는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의 실패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2388@mdilbo.com ▶관련기사 5면

## "광주·전남에 180km급 XTX 추진"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밝혀

광주·전남에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 선의 착공 및 개통, D·E·F 선의 추진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

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제6차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정기자 wordflow@mdilbo.com

2024  
제13기  
무등CEO  
아카데미

함께 가면 멀리갑니다!

| 지원자격 | 정부부처·공공기관 고위관리자·기업최고경영자 및 임원·법조·의료 학계·예술분야 전문가·국회의원·지방의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 모집인원 | 00명 내외

| 강의장소 |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강의시간 | 격주 수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6시부터 호텔식사 제공)

| 교육기간 | 2024. 3. 20(수) ~ 12. 11(수), 총 18강(1년 과정)

| 수강료 | 440만원(부가세 포함, 해외연수비 별도)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3년 11월 ~ 2024년 2월말

| 기타문의 | 무등일보 마케팅국 사업본부 062) 606-7778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 20년간 경제 잣대로 지운 균형발전, 정치가 살려내



## 특별법 통과 의미와 전망

영호남 주축 도시를 1시간 대로 잇는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모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동서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동시에 '낙후 교통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여년 간 번번이 좌절시킨 중앙집권적 시각과 '경제성' 논리를 깨뜨린 것이다.

# 北 도발 강도 높이는데… 무늬만 ‘민방위 대피소’

광주 582곳 300만명 수용 가능  
상당수 시민들 ‘대피장소’ 몰라  
시설 내부 비상용품·장비 부족  
“훈련 아니라도 틈틈이 안내해야”

북한이 대남 위협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등을 포함해 위급상황 시 대피해야 할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 지역 일부 아파트 내 대피소의 경우 공기호흡기 등 비상용품이 부족하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에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곳은 관공서와 지하철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582곳이며 수용 가능한 인원은 299만6천482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 인구수는 141만9천 237명으로 숫자상으로는 광주 시민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상당수 시민들이 민방위 대피소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2만명 수용 가능한 민방위 대피소이지만 지상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이 없다.

지하주차장 입구에 들어서야 안내표지판이 보이지만 이마저도 크기가 작아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설명이다.

주민 김모(48·여)씨는 “민방위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맨날 주차하는 곳이 민방위 대피소인지는 처음 알았다”며 “북한 도발이 심상치 않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여기로 옮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정도로 낯설다”고 했다.

민방위 대피소에 있어야 할 비상용품도 아

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지하주차장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광주 5개 자치구 아파트 10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주차장 입구에 대피소 안내표지판만 붙어 있었고, 대피소 위치를 알려줘야 할 유도표지판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 중 4곳은 비상용품함의 위치도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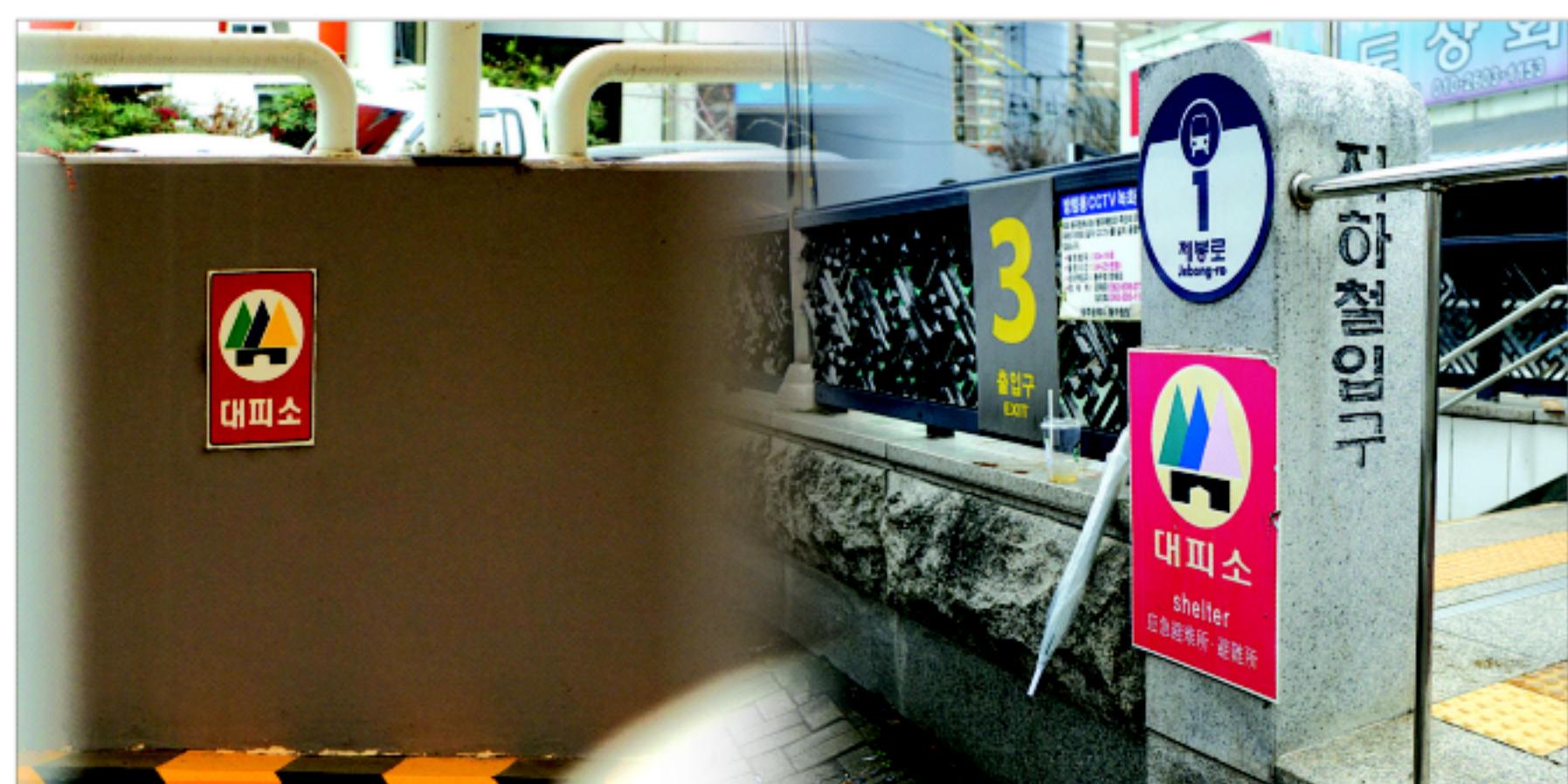
무등일보 취재진은 동구 계림동, 서구 치평동·남구 백운동·봉선동, 북구 운암동, 광산구 서남동·운남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파악했다.

지하철역의 사정은 그나마 나았다. 출구에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이 있었으며, 역 내부에도 비상 상황을 대비해 공기호흡기와 휴대용 조명등,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직원들 역시 개찰구 바로 앞에 있는 민방위 비상용품함에 호루라기, 라디오, 확성기 등 어떤 용품들이 들어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노후화된 안내표지판이 많아 교체가 필요해 보였다.

직장인 신모(38)씨는 “전쟁이 나거나 위급상황 때 대피하고 있는 곳인데, 안내도 부족하고 비상용품 같은 것도 못 봤다”며 “진짜 전쟁이 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인구수 대비 민방위 대피소 자체가 부족하다. 광산구 선암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인구 밀집지역이지만, 이 일대의 민방위 대피소는 수용 가능 인원이 800명인 호남대학교 대피소와 4천명인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단 두 곳뿐이다.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공공 대피시설은 소유주의 허가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한데,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이처럼 대피소가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비상용품 이동 문제는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어, 자체 점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시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군기자 lg0518@mdilbo.com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민방위 대피소 안내표지판이 붙어있지만 입주민 다수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왼쪽). 그나마 광주 동구 남광주역 지하철 역사 주변에는 대피소 안내판이 눈에 띄게 붙었다.

## 바다 훼손한 조선업체 대표 항소심서 감형

**목포해양청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法 “불가능한 일… 처벌할 수는 없다”**

조선소 부지 조성·운영 과정에 국가가 관할하는 바다인 ‘공유수면’을 훼손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부장판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중소 조선사 경영주 A(6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1심에서 A씨의 업체에 선고된 벌금 300만원도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와 A씨가 실질 운영하는 업체가 조선소 조성 도중 바다에 투하한 흙과 돌(사석)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재해방지시설에서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선박 건조를 하는 등 일련에 사석을 다수 쌓아놓고 용도 변경이 안 된 시설에서 선박 건조 작업을 해 공유수면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내준 목포해양수산청이 2020년 2차례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목포해양수산청이 바다에 투하한 흙·돌 전체를 제거하라’며 내린 원상회복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정 처분인 만큼,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m7de@mdilbo.com

## 도심 주택에 불… 80대 노부부 숨져

소방당국, 긴급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심야시간대 광주 도심의 한 주택에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졌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께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14대와 소방대원 36명을 동원해 긴급 출동했다.

진압 20여분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곧장 인명검색을 실시, 1층 작은 방 안에서 쓰러져

있던 A(81)씨와 B(80·여)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을 회복해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치료 중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 설치된 에어컨 전선에서 단락이 생기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박승현기자 psh0904@mdilbo.com

## 춤 추던 여성 추행 경찰관 ‘선고유예’

**법 “합의한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주점에서 춤 추던 여성을 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부의 선처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구대 소속 A(57) 경감에게 벌금 7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3월10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주점에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던 여성에게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경감은 여성의 영당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내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 경위와 CCTV 영상으로 비춰 청바지 영당이 부위에 붙어 팔랑거리는 상표를 때려고 손을 뻗었던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합의한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쓰레기 쏟고 종량제봉투만 ‘쏙’  
경찰, 60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조사**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쓰레기 담긴 종량제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쏟은 뒤 봉투만 흡쳐 달아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에서 쓰레기를 담고 있던 75ℓ 규격 종량제 봉투를 흡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쓸 목적으로 봉투를 흡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호기자 seongho@mdilbo.com

광주 최대 교통체증! 최고 광고효과!

###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광주 최대 광폭대로에 위치  
왕복16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40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두 개(무진대로, 죽봉대로) 광폭대로에  
노출되어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이상 / 월 3천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스크린 크기 : 13.6m x 7.7m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업 광고 노출  
▶ 해상도 : 풀HD 국내최고 화질  
▶ 광고 노출 시점 :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애드 062) 510-0900**

# “산재 막는 것도 중요하나, 영세기업 준비기간도 필요”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지역의 영세한 기업들 대부분이 망할 겁니다. 유예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25일 광주지역에서 직원 10여명이 있는 A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이같이 호소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창업초창기나 경제가 끊었던 2008년보다 최근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물가·고금리 악재 겹친 상황에 직원들 안전교육 실시 쉽지 않아 외노자 대부분인 사업장도 한계 “상황 고려치 않은 법 확대는 폭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7일부터 적용된다.

양씨는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

비를 틈틈이 해왔지만 최근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졌다. 직원들 안전을 위해 여러방법을 찾아봤지만 더러니없는 예산을 쓸 생각에 눈앞이 깁 깨웠기 때문이다.

양씨는 “영세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에 매출이 크게 줄었고, 주변에는 당장 망한다는 업체들도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대표가 직원들 안전에 무관심할 수 있겠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역에서 B사업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소식에 난색을 드리냈다.

김씨 사업장의 경우 안전 교육조차 쉽지 않았다.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우리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곳이라서 대표만 안전의식이 있다 고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직원들도 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하고, 안전 교육도 잘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라서 교육이 쉽지 않아 애를 먹었다. 특히 직종별 교육이 없다 보니 형식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의무 교육을 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다치면 마음이 쓰 은해졌지만 요즘에는 무섭다는 기분이 든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다쳤음에도 법적 잣대를 들이

대면서 대응하는 것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할까 싶다”고 토로했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직원 5명과 함께 10여년 동안 한식점에서 일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단어는 생소했다.

박씨는 “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라니 당황스럽다. 만일 주방에서 조리사 실수로 사고를 내면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민들이 제대로 지켜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확대하는 것은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한경기자 hkk42@mdib.co

## ‘눈오리’ 힐링이냐 민폐냐

인도나 아파트 계단 등에 전시 “보기 좋아” vs “누군가 치워야”

사흘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광주 도심 거리 곳곳에 등장한 귀여운 모습의 ‘눈오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전시라도 해놓은 듯 눈이 오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의 마음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내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23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당산아린이 공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종일 눈보라가 흘날리는데도 공원 곳곳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두꺼운 외투와 장갑, 귀마개로 꽁꽁 무장한 어린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오리를 만들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형형색색의 눈오리 집게를 힘껏 쥐어 눈오리를 만든 아이들은 눈오리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히 들어 가로수 주변이나 차도와 인도를 구분 짓는 안전펜스 위, 계단 등에 전시하고 했다.

일렬로 세워진 수십 개의 눈오리를 보고 스마

트폰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눈오리에 시선이 끌려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풍암동 주민 이소영(22·여)씨는 “길을 걷다가 눈오리를 보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어릴 때 아빠와 눈사람을 만들던 게 절로 생각나곤 한다”며 “눈오리를 만드는 아이들을 널을 알고 보다 보면 뎅달아 힐링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전시된 눈오리에 불만을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이유에서다. 눈을 뭉쳐서 만들다 보니 단단히 굳어 잘 녹지 않아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시민은 “눈오리를 피해서 걷느라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닌는 인도나 계단에 전시하고 가는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에게 노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을 비롯해 새벽 내내 홀로 눈을 치우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다 놀았으면 사진으로 남긴 뒤 치우고 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b.co



한파에 바다도 ‘꽁꽁’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연일 몰아친 25일 전남 함평군 돌머리해변가에 얼음이 두텁게 얼어 있다. 기상청은 “26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올라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들겠다”고 밝혔다.

임정우기자 jo5605@mdib.co

## 목포대·순천대 ‘단일 의대 설립’ 힘 모은다

양 대학 신설 운영안 정부에 견의 실무협 구성을 초안 마련키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25일 전남권 의과대학 유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신설 운영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와 함께 두 대학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 의과대학 설립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대학 총장은 이를 위해 지난 22일 순천대에서 만나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 목포대·순천대 관계자들이 통합 의대 설립 성공 사례로 평가

받는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최근 방문하면서 합의한 공동 의과대학 추진방안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는 캐나다 레이크헤드 대학(서부 캠퍼스)과 로렌시안 대학(동부 캠퍼스)에 각각 의대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 캠퍼스는 온타리오주 주도인 토론토 북서부와 북부에 있으며, 캠퍼스 간 거리가 약 1천km 떨어진 곳에 있다.

양 대학 총장의 협의 결과에 대해 김 지사는 크게 환영하며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양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내고 “전남을 대표하는 두 대학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흐름 속에서 반드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과 절박함의 소산”이라며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수도권 의료인력만 확대할 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료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의료계는 전남지역의 대신설을 포함한 의대 증원 방침에 힘을 모아주고,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2026학년이나 2027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캐나다 노슬대학의 지역의료 선도모델 사례를 바탕으로, 두 대학의 단일 통합 의과대학을 공동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jm7da@mdib.co



지난 23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모식당 앞 난간에 눈오리 수십 개가 일렬로 세워져 있다.

서강대학교

##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www.seoyeong.ac.kr](http://www.seoyeong.ac.kr)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1(운암동)

# 서영대학교

##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교육기관

### 미용사(헤어·피부) 종목

#### 뷰티미용과

2023년 재학생 응시자  
미용사(헤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100%**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종목

#### AI미래자동차과

2023년 재학생 응시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96%**

서영대학교  
SEOYEONG UNIVERSITY

# 제3지대, 소통합서 빅텐트로… 신경전도 치열

이준석, 공통 가치 형성 도달 못해 우선 통합할 당 합치고 외연 확장 5개 신당 조만간 3개로 압축 전망 이석현 “이준석·안철수와 분당 대결”

제3지대 신당 세력에서 ‘소통합 후 대통합’ 과정을 거치는 ‘2개 단계 빅텐트론’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3지대 빅텐트가 완성되기 까지 각 세력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단계 빅텐트론’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지난 24일 합당을 선언하며 제3지대 첫 통합이 이뤄졌다. 또한 빠른 시일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세력인 새로운미래(새미래)와 미래대연합(미래연)이 합

당한 후 금태섭의 새로운선택까지 합쳐 3자 대통합을 이루는 시나리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합당을 선언했다.

양당은 사전 교류가 있었고, 합당의 관건이 되는 정강·정책 부분에서도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통합할 수 있는 당끼리 통합을 매듭짓고 더 큰 ‘빅텐트’를 구성해 외연을 넓혀 가는 전략으로, 빅텐트 구성 논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미래와 미래연의 상황도 비슷하다.

새미래는 이날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미래대연합과의 협력 관계가 의미있게 진전되고 있다”며 “25일 경북도당과 부산시당, 27일에는 광주

시당과 전북도당대회 개최에 이어 28일에는 경기도, 29일에는 충북 순서로 6곳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25일은 따로 하더라도 27일 광주시당 창당대회부터는 가급적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미래와 미래연도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합당처럼 정당의 정체성과 지향점, 정책의 방향성 등에서 의견이 적은 세력들끼리 우선 통합 기조를 맞춰놓자는 취지로 ‘소통합’을 진행 중이다.

이석현 새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세부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 마무리만 되면 광주시당 창당대회부터는 하나의 당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3지대에 자리했던 5개 신당이 금명간 3개 신당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이후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와 류호정 정의

당 의원의 새로운선택과 3자로 대통합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위원장 발언을 토대로 보면 새미래와 미래연이 하나의 당으로 창당대회를 열 경우 창당 작업은 다음달 초면 완료된다. 이어 설 연휴 전 국민들에 제3지대 통합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논의 본격화를 선언한 다음 연휴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나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대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전초전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과의 통합에

대해 “열어놓고 봐야 한다.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산술 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대라면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산술 합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가칭)’의 이석현 공동 창당준비 위원장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니라 전 총리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인천 계양을 우리가 왜 가나. 밀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갑)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붙으면 관객이 1천만명 넘을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서울=김병운기자 bwj2388@mdiboo.com

## 이낙연 ‘새로운미래’ 내일 광주시당 창당대회

정찬용 준비위원장 “새 정치세력 중심”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이 25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경북도당 창당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스

당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 전체의 삶이 위태로워졌다”며 “민생과 사회·경제 양극화, 기후위기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절실히 요청되며, 광주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27일 오후 5시 전북도당, 28일 오후 2시 경기도당, 29일 오후 2시 충북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찬용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거대 양

이미지기자 foresight@mdiboo.com

## 이개호 “윤-한 국민 아픔 권력에 활용 업기적”

서천 화재현장 방문해 어떤 행위했는가



이개호(더불어민주당·담양장성영광합평·사진) 정책위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과 관련 “국민들의 아픔 조차 권력과 선거를 위한 수단에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과 생업수단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그날 어떤 행위를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업기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생생 일군 터 전이 젯더미로 변해버린 눈물의 현장을 권력에 눈 먼 현장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신속히 서천특화시장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즉각적 지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망연자실해 있을 상인들에게 임시 시장을 조속히 개설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이미지기자 foresight@mdiboo.com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그날 어떤 행위를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업기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생생 일군 터 전이 젯더미로 변해버린 눈물의 현장을 권력에 눈 먼 현장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신속히 서천특화시장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즉각적 지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망연자실해 있을 상인들에게 임시 시장을 조속히 개설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 경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 체포해 조사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에 서둔기에 습격당한 가운데 경찰이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배 의원의 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습격 당했다. A씨는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뒤쪽을 가격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

송해 조사 중이다.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지난주부터 주요인사 전담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고 있으나 배 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윤석열 대통령,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광역교통 혁신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스

## 22대 총선 출마합니다

### ‘동남을’ 김성환 “당당하게 호남 정치 재건”



김성환(사진)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고 시원한 정치로 호남정치를 다시 재건하겠다”며 “특히 동남을 지역이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동남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이미지기자 foresight@mdiboo.com

### 문금주, 보성군 이장단협의회 방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 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 출마하는 문금주(사진)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보성군 이장단협의회를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성군 경북면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보성군 이장단협의회 회의’ 장소를 방문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농어촌 균형발전 및 경제적 기본권 보장,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대 및 분권형 농정 실현,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업 안보 강화, 친환경 농수산물을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 구축 등 문 후보의 공약 사항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역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천기자 jck4151@mdiboo.com

### 서구갑 출사표 국힘 하현식 “광주 새 운명 개척”



하현식(사진)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광주 총선 후보군 중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하 당협위원장은 2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가 균형 잡힌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당선돼) 반드시 국회로 나가 광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여섯 가지 공약도 내세웠다. 군공항 국가 주도 이전, 영산강 노을데크길 조성, 지역 맞춤형 청

이미지기자 foresight@mdiboo.com

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통한 일자리 창출, 서구 청소년 공립 독서실 건립, 노인 건강 힐링센터 조성, 구도심 활성화 등이다.

하 당협위원장은 “외골수 앙 당시라는 명찰을 단 광주는 해방 이후 어느 정권에서나 엄청난 지역적 피해를 봤다”면서 “불통을 내던지고 소통하는 광주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자 foresight@mdiboo.com

### ‘북구갑’ 정준호 “지방선거 ‘시민참여경선제’ 도입할 것”



정준호(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경선제’ 도입과 관련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가 발표한 이 제도는 지난 21일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참여공천’의 지방선거 버전이다.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한 상향식 경선 시스템을 도입해 ‘출세우기’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다. 정 예비후보는 “권력남용으로 인한 공천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구의원 경선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경쟁제도를 포함한 시민경선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자 foresight@mdiboo.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 선거구에 출마하는 최일곤(사진)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대출의 예외없는 만기연장 추진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23년 6월 기준 코로나 대출 잔액이 76조2천억원, 차주 수는 35만1천명이고, 만기연장의 경우 25년 9월까지 연장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존 만기연장(6개월 또는 1년) 대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만기 연장이 가능한 한데 불경기로 상한금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등 대책과 현장이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의 타당성은 아니나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빠짐없이 듣고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천기자 jck4151@mdiboo.com

# 전남 도민 '국립의대 신설' 향한 뜨거운 열망

의사당 앞 국립의대 유치 범도위 결의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환영·지지 '열악한 전남 의료환경 극복 방안 촉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에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범도민추진위원회의 하정·이주희·주상운·강윤성 공동위원장과 최순모 고문을 비롯한 위원, 이병운 순천대 총장, 박정희 목포대 의대설립추진단장, 향우회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서울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허정 공동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전남도민과 향우가 모인 것은 전남에 의대 유치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과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회 공동위원장과 순천대 총장, 목포대 단장이 차례로 나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지지를

간절한 외침에, 의료계와 정부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로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희, 주상운, 강윤성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순천대 총장, 목포대 단장이 차례로 나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지지를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의료계도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확실히 바로 잡도록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2026~2027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의대를 설립할 때 관련 대학과 협력해 캐나다 노스(NOSM) 의과대학을 모델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두 대학과 함께 공동 단일의대 설립 해외 성공사례인 캐나다 노스 의과대학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도내 의대 설립 방안을 구상하는 등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김병운기자 bwj238@mdibo.com

## 전남 국립의대 유치활동 지원 가능

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확대 발표에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치가 포함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역별 토론회와 캠페인에 이어 지난해 10월 18일 '의대 신설'이 빠진 의대정원 확대는 전남의 의료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자 '지방 소멸위기 대응 정책연구회'(의원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 역시 전남의 의료여건 개선과 의대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bo.com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해 9월 본 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이 임박한 만큼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남 국립의대 유치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 한 때"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국립의대 유치 활동이 보다 힘있게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남도의 의대유치 사업 추진은 물론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차원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한층 탄력이 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 내년 국비 확보 선제대응

1차 보고회 주요 사업 전략 발표  
전담팀 활성화로 국비 사업 발굴

을 발굴·공유했다.

광주시는 '사전절차 더 빨리,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국비확보 활동 방향을 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22대 총선 공약, 민선8기 시정방향이 연계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보완해 4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광주시 핵심 시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 구체화, 논리 보강 등을 통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실국에서는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지원유형별 국비활동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을 상시 방문하며 사업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대감 및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접적단지 2단계 조성(총사업비 6천억원), 미래차 인증센터 구축(총사업비 380억원), 미래차전환차종 유연적용 부품 중소기업 역량 강화(총사업비 135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총사업비 800억원) 등으로 산업·문화·사회간 접자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됐다.

광주시는 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보완해 4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日 요리연구가 사로잡은 전남의 맛과 멋

도·관광재단, 26명 초청 '미식관광'  
전남 발효음식·청자 빛기체험 선사

과 멋, 역사와 전통, 특별한 경험까지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성해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는 까다로운 일본 약선요리 연구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약선 요리는 한약재를 사용하여 만든 건강식이다.

전남도와 재단 기업육성팀이 작년 8월부터 신카이마야코 전라남도 명예홍보대사, 지역 여행 행사와 공동으로 지역자원 조사 및 현장 투어를 진행하며 주민 손으로 빚은 남도곳간 미식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특화상품을 개발해왔다.

이를 토대로 발효음식을 테마로 김강담그기 와 기순도 전통장담그기 체험을 발굴했고, 지역 명소 투어를 통한 볼거리 제공, 목포의 청정 수산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 견어물시장과 목

포수협 활어위판장 경매 관람 등을 연계한 투어 상품을 개발해 체험·관람·쇼핑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만족도를 높였다.

관광객들은 목포 견어물시장에서 특산물 구매, 강진 광우두래 주민사업체 비취에 물들다와 발효담다에서 청자 구매 및 김치담그기 체험, 담양 주민사업체 꿈에그린농장의 열대과일 활용 상품 시식 및 체험 등 이번 여행 일정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인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

# 수송기 추락해 포로 사망 러시아-우크라 책임공방

포로교환 중 격추 74명 전원 숨져  
“우크라 미사일 포착” vs “러 자작극”  
서로 네탓…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24일(현지시각) 러시아군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에서 격추돼 우크라군 포로 65명을 포함한 탑승자 74명 전원이 숨졌다.

러시아 언론 등 외신들을 종합하면 러시아군 수송기 일류신(IL)-76 군 수송기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우크라 국경에서 약 90km 떨어진 벨고로드 코로잔스키 지역의 야블로노보 마을 인근 들판에 추락해 폭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군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 6명 및 호송요원 3명 등 9명 등 탑승자 총 74명 전원이 숨졌다.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탑승자 74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5~6km 떨어진 들판에 추락해 추가 피해는 없다고 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 수송기는 치칼로프스키 비행장에서 벨고로드로 비행 중이었다.

우크라군 포로 80명을 태운 또 다른 수송기도 비행 중이었으나, 첫 번째 수송기가 격추된 뒤 우회했다고 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군이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 레이더가 하르코프(하르키우)에서 우크라 미사일 두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카르타풀로프 국가두마(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장은 “우크라군의 미국산 패트리엇이나 독일산 IRIS-T 대공미사일 3발에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를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우크라와의 추가 포로 교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는 이날 포로 192명씩 교환할 예정이었다”면서 “우크라 군이 포로들이 탑승해 있는 것을 알고도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이번 테러 행위를 통해 우크라 지도부는 자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추락 사고 발생 후 침묵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약 8시간 만에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포로 교환이 예정돼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추락한 러시아군의 IL-76 수송기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벨고로드주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군용기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뉴시스

하르키우 폭격을 위한 S-300 미사일을 운반하던 러시아 수송기를 격추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리는 지난번 포로 교환 때 와 달리 벨고로드 주변 지역의 항공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러시아의 계획된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벨고로드 상공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러시아의 계략에 말려 자국군 포로가 탑승 중이던 수송기를 오인 사격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군은 IL-76 수송기 추락 사고를 언급하지 않은 다른 성명에서는 벨고로드 지역의 러시아 군사 시설을 겨냥한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드미트로 루비네츠 인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며 “각 매체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공식 출처만 신뢰해달라”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은 교활하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끔찍한 방법을 사용할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벨고로드로 추정되는 장소에 비행기가 떨어져 거대한 화염이 발생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에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의장국인 프랑스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조속히 회의 일정을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日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추진에 반발

일본 군마현, 29일부터 진행계획 통보  
현지 시민단체 “멈추고 냉정히 논의를”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 당국이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오는 29일부터 철거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를 관리하는 현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마현이 내달 11일 까지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마친 뒤 약 3천만 엔(약 2억7천만원)의 비용을 추후 청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철거 시기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군마현은 공원을 폐쇄하고 추도비를 철거할 전망이다. 또한 군마현은 이후 철거된 비석은 시민단체 층이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이 추도비는 2004년 4월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설치됐다. “정치적인 행사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설치였다. 추도비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혀 있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비. 뉴시스

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쓰여 있다.

군마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6천여명이 동원돼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군마현 군마철산, 일본발송전이와 모토 발전소공사, 나카지마 비행기후한지하공장 공사 등에 동원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묻혀있던 이러한 사실을 1995년 군마현 주민들이 결성한 조사단이 조사

했다. 당시 조사단을 중심으로 한 ‘추도비를 건설하는 모임’이 기금을 모아 2004년 추도비를 설립한 것이다.

건설하는 모임의 후계 단체인 시민단체 층은 매년 추도비 앞에서 추도 행사를 열어왔다.

2012년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 그라자 군마현 당국은 2014년 이 추도비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이 정치적이라면서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정치적 행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 추도비 설치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불허한 자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불허가 처분 취소 요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달에는 군마현의 비석 철거 절차를 멈춰 달라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가와구치 마사야기 시민단체 공동대표는 이날 군마현 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철거하고 나서는 늦다. 면밀히 서서 냉정한 논의를 부탁한다”고 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 프랑스 농민 시위 확산… 들끓는 유럽 ‘농심’

농업 규제로 소득 줄어 불만↑ 전국 번져  
독일서도 ‘경유 보조금’ 축소에 추가 시위

소득 감소에 항의하는 프랑스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폴란드·루마니아·독일 등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유럽의회 선거 4개월여를 앞두고 농민 문제 가 유럽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도로 봉쇄 시위가 24일(현지시각)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프랑스24 방송 등이 보도했다.

수도 파리에서 멀지 않은 중부 지역의 부르주에서는 농민들이 벨기에에서 수입된 냉동 채소 상자들을 도로에 쏟아놓고 시위를 벌였다. 전날 남부 파리에 지역에서 자동차가 농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충돌하면서 여성 농민이 숨지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도 프랑스 농민 단체가 주도한 시위가 벌어졌다.

농민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으로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하 요구가 거세진 테다 농업에 대한 환경 규제도 강화되면서 농사 짓기가 날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남서부 카스텔노다리 지역의 청년 농민회 대표 토마 보네는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며 “우리도 이웃나라 농민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달 가까이 농업용 경유 보조금 축소



24일(현지시각)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인근 도로에서 농부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있다. 농부들은 자국 전역에서 저임금과 농업의 과도한 규제, 비용 증가 및 기타 문제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독일 농민들도 추가 시위를 예고하며 올라프 솔츠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폴란드·루마니아·불가리아 등 동유럽 농민들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무관세로 대거 들어오는 걸 문제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수입 물량 규제도 풀었다.

농민들은 이날 로베르트 하베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방문이 예정된 마인츠에서 500~1천대의 트랙터 등을 동원한 시위를 예고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이번 연도 예산안이 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지난해 11월 현법재판소 결정으로 대대적 긴축이 불가피해지자 농업용 경유 보조금 대폭 삭감 결정을 내렸다. 독일 정부는 삭감분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청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법인은 설립허가취소 결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 법인에 대하여 체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제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체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참생동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사면 민속마을길 415-7  
청산 인 변호사 김준성

연락처 : 광주 동구 동명로 110, 206호(자신동, 법조타운)  
전화 : 062-226-7400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No.1 신문

# 무등안내

대표 전화  
**T. (062)606-7700**

광고문의  
**T. (062)606-7772**  
**F. (062)383-8765**

www.mdilbo.com

1 문·의·전·화 | 010-8209-0088

**SALE & LEASE BACK  
투자 물건**

**망 가**

- 위치 → 나주시 빛가람동 1층 상가 (스타벅스 건너편)
- 매매 → 12억(포괄양도양수 조건)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 월 330만원 (부가세 포함)

**마 파 트**

- 위치 → 광주 동구 학동(101제곱미터)
- 매매 → 보증금 2억 2천(2년)
- 임대 → 3억 2천

**점 포 양 도**

- 위치 → 나주혁신도시
- 업종 → 한식(도시락, 샐러드)
- 권리금 → 2억3천(조정가)
- 현재 호황 업종, 배달 및 고정 고객 (단체, 개인) 다수, 꾸준한 매출, 안정된 포지션과 입지가 장점!

**W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 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픈 상담◀

JW 제이엠신용정보  
062-417-4731

**무등일보 문화관광 전문 매거진  
아트 plus**

대표전화 | 062)606-7750  
광고문의 | 062)606-7772

# 겨울바람에 움츠러든 마음, 낭만이 깃든다

광양으로 향하던 날 광주는 새벽부터 눈이 흘날리더니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양으로 향하는 길이 걱정스러운 마음 한 켠엔 눈 내리는 날 뚜벅이 여행을 할 생각에 들뜨는 마음도 들었다. 가는 길에도 멈출지 모르는 눈에 주변은 점차 하얀 세상이 됐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향하는 여행길은 점차 아쉬움으로 변했다. 광양으로 가까워지며 하얀 설경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눈 내리는 날의 여행에 대한 설렘이 더 커나보다. 펄펄 내리는 눈은 없었을지도, 광양에서의 겨울 여행은 또 다른 겨울 여행의 묘미를 선사했다.



옛 광양역의 폐창고를 리모델링한 광양예술창고. ①광양예술창고에는 요소요소에 폐창고의 것을 그대로 살렸다. ②광양예술창고 B동은 카페 겸 쉼터다. 창고의 천장 구조물을 그대로 살렸다. 천장까지 뻗은 책장 또한 인상적이다.



## 뚜벅이 여행 광양

◆회색빛 기차역은 색색의 따스한 공간으로  
광양 여행은 오래 걸을 것 같다. 광양읍의 명  
소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2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읍  
여행은 그런 점에서 뚜벅이들에게 안성맞춤이  
라 할 수 있다.

일단 터미널을 빠져나오면 대각선 윈편으로  
유리 건물이 눈에 띄는데 이곳은 옛 광양역 부  
지에 지난 2021년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이  
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술관 카페 등  
편의시설이 잘 돼있고 전시 또한 유명 해외 작  
가 초대전이나 MZ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흥미  
로운 기획전 등이 열리고 있어 광양을 여행하  
는 이들이라면 꼭 한 번 들러보길 추천한다.

미술애호가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RM도 이  
곳을 찾아 인증샷을 남기고 간 바 있다.

그 앞으로는 옛 광양역 화물창고를 리모델링  
해 만든 복합공간 광양예술창고가 자리한다.  
총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미디어영상과 전시  
물로 꾸려졌고 한 동은 문학카페와 쉼터로 조  
성됐다.

터미널과 가까운 쪽의 A동은 미디어아트를  
통해 광양 명소를 둘러볼 수 있으며 '영재작가'  
로 유명한 전이수 작가와 광양 어린이들이 함  
께 그린 그림들 또한 미디어아트로 태어나 관  
람객에 온기를 전한다.

흥미로운 건 이 폐창고에 얹힌 이야기다. 미디  
어영상실을 나서 B동으로 가는 복도에는 이경모  
사진작가의 한국 현대사를 실감나게 담아낸 사진  
600여장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전시돼 있는데,  
이 폐창고는 이경모 작가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 소유의 공간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경모 작가가 찍은 사진은 1940년대부터  
시작한다. 여순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글곡과  
그의 고향인 광양 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등의  
옛 모습, 그 시절 문화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B동은 따뜻한 분위기의 쉼터와 카페다. 천장까  
지 높이 뻗은 책장과 전이수 작가의 그림이 따스  
함을 선사하는 이곳은 폐창고의 천장 구조물과  
철문 등을 그대로 살려 이곳만의 매력을 살렸다.

### ◆정다운 읍내 골목에 숨겨진 보석

다시 길을 걷니 터미널 방향으로 향해 조금  
더 걸으면 유당공원을 만날 수 있다. 도착했을  
땐 다소 당황했다. 겨울이건만 막연하게 초록

### 명소들 읍내에 옹기종기 모여 걷는 여행객에 추천하는 코스

옛 광양역 부지 도립미술관부터  
광양예술창고까지 복합공간 눈길  
폐창고에 얹힌 이야기 흥미진진  
쉼터와 카페까지 한 번에 해결  
골목길 걷다 보면 볼거리 가득

찬 바닷바람 끓고 찾은 배알도  
운동주 시인 시와 문학에 스며  
그의 유고집 보존 가옥도 눈길



읍내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인서리 공원. 한옥과 공  
가, 폐양곡창고 등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며 인기를 끌고 있다.

### ✓ 뚜벅 Tip

광양은 읍에 구경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읍에  
서만 여유롭게 시간을 즐겨도 좋다. 특히 읍내  
즐길거리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10분 내  
외면 걸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읍권에는 위에 언급한 명소 외에도 광양오일  
장, 옛 광양군청을 활용한 광양역사문화관 등  
이 있다. 또 광양불고기 거리도 읍에 있으니 식  
사하기에도 좋다.

빛을 생각한 텃이다.

산책하기 좋은 크기의 공원으로 연못 가운데  
정자가 자리하는 등 공원이라기엔 정원 느낌이  
가미됐다. 이 공원은 1547년 조성됐는데 광양  
읍성을 축조하고 바다에서 왜구들이 볼 수 없  
도록 나무를 심은 자리다.

이 공원의 명물은 나무들이다. 수령 400년이  
넘는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와 400~500년의  
팽나무와 느티나무 등 공원의 오랜 역사와 짐  
작게 한다. 그런 이유에도 유당공원은 겨울보  
다는 봄과 여름, 푸릇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특히 이팝나무 꽃이 피는 4월 말에서 5월이  
가장 둘러보기 좋을 듯하다. 겨울은 명물인 나  
무들이 잎을 떨어낸 때다 보니 훨씬 분위기다.

이곳서 길을 걷니 정다운 골목길을 구경하  
며 10분 정도 걷다 보면 광양의 새로운 명소인  
인서리공원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정면에는 널  
찍한 주차장도 있어 차를 가지고 오는 여행객  
에도 편리하다.

인서리공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공  
간으로 오래된 한옥과 공가를 매입해 공간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복합문화공간이다. 아  
트숍과 카페, 스테이는 한옥을 개조했고 전시  
공간은 버려진 양곡창고를 활용했다. 이 과정  
에서 기존 공간이 갖고 있던 구조나 특성 등을  
크게 해치지 않아 재미를 더한다. 아트숍과 카  
페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장독이나 화분을 두  
면 대문과 계단이나 카페 천장 서까래, 마루 공  
간이 그렇다.

아트숍과 전시공간, 카페는 동선을 공유한  
다. 가장 먼저 반기는 건물은 아트숍이다. 작품  
을 활용한 아트상품이나 아기자기한 소품을 판  
매하는 곳으로 인사동의 공간을 연상케도 한  
다. 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전시공간은 작품 전  
시와 함께 판매도 이뤄지고 있어 감상뿐만 아  
니라 구입까지 색다른 미술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시 공간 뒤편으로는 카페가 자리한다. 카  
페는 총 두 개인데 한 개 동은 음료 주문이  
이뤄지고 다양한 해외 식재료, 굿즈 등도 함께  
팔고 있어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그로서  
리숍 같기도 하다. 주문이 이뤄지는 동에는 앞  
아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자그맣게 있다.  
마루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앉아서만 느낄 수 있는 한옥의 고  
즈넉함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 마주 보고  
있는 또 다른 동에서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고, 동 사이 마당과 뒷마당에는 야외 자리  
가 마련돼 있어 기호에 따라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광양 수변공원 배알도 인증샷 명소.

여행을 1박으로 계획한다면 이곳 한옥 스테  
이에서 숙박을 하고 여유롭게 읍내 곳곳을 산  
책하듯 광양을 즐기면 좋을 듯하다.

### ◆부침의 이야기 안은 겨울 바다와 강

배알도는 배알도 섬정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 이름에 걸맞은 곳이다. 수변공원  
에서 배알도, 배알도에서 망덕포구로는 각각  
해맞이다리, 별해는 다리라는 이름을 가진 해  
상 도보교로 이동이 가능하다.

수변공원에서 바라본 배알도는 너무나도 가  
깝다. 바다 한가운데 정원 같은 작은 섬이 있다  
니 귀여운 느낌마저 든다. 이같은 감상은 '해  
상' 도보교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  
닫지 못한 덕이었다. 다리 가운데쯤 다다르면  
해변에서는 느끼지 못한 엄청난 바닷바람이 불  
어 춥다 못해 무섭게까지 느껴질 정도다. 겨울  
에 이곳을 찾을 땐 따뜻한 웃자립과 모자는 필  
수다. 바닷바람과 사투하며 다다른 배알도 섬  
정원은 다리 위와는 다르게 비교적 평온하다.  
배알도에는 해운정으로 바로 오르는 계단과 대  
크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  
다 보면 오르는지도 모르는 사이 섬 정상의 해  
운정과 가까워진다.

섬진강과 남해바다와 만나는 지점 등을 조망  
할 수 있는 해운정은 1940년에 지어졌는데  
1959년 태풍 사라호로 붕괴됐다가 2015년 시  
가 복원한 것이다. 건립 당시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를 받아 현판을 걸었는데 태풍으로 붕괴된  
후 면사무소에 보관된 줄 알았던 현판의 행방  
이 묘연해 건립자 후손에게 휘호를 받아 현판  
을 걸는 등의 부침이 있는 정자다.

해운정으로 오른 길로 내려가면 별해는 다리  
로 연결된다. 별해는 다리는 유례한 모습이 예쁘  
기도 한데 운동주의 시 등을 만날 수 있어 더욱  
낭만을 더한다. 이 다리는 운동주 유고를 보존했  
던 정병욱 가옥이 자리한 망덕포구와 연결된다.

망덕포구에는 카페와 식당 등이 있어 수변공  
원-배알도-망덕포구 코스는 이미 드라이브, 산  
책코스로 사랑을 받고 있다.

물명을 즐기며 데크길을 20여분 걷다보면 운  
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을 만날 수 있다. 어  
촌의 자그마한 가옥인 이곳은 정병욱 선생의  
부모가 운영하던 양조장이자 주택이다. 현재는  
워낙 오래된 가옥인 탓에 수리를 할 수밖에 없  
어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순 있지만 다양한 자  
료들이 있어 볼거리가 된다. 관광해설 운영 시  
간은 정해져 있으나 방문자가 오면 용통성 있  
게 운영되는 듯했다. 시간이 있다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기 좋다.

어찌다 광양 작은 가옥에 운동주 유고가 보  
관된 걸까. 운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전  
시상과 민족사상을 나누던 절친한 연희전문학  
교 후배 정병욱에게 일제 치하에서 발표할 수  
없었던 한글로 쓴 시집의 육필 원고 하나를 건  
네고, 이후 정병욱은 태평양전쟁에 징집되자  
어머니에게 '육필 원고를 잘 보관해달라'며 '자  
신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든 연희전문학  
교에 보내달라'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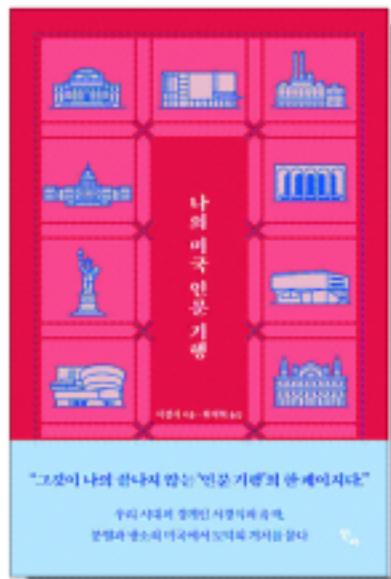
정병욱의 어머니가 운동주 육필 원고를 명주 보자  
기애 쌌다. 육필 원고는 깊은 곳에 넣어두고 마루 밑에 숨겼던  
당시를 해당 자리에 그대로 재현했다.

정병욱의 어머니는 이를 명주보자기로 싸서  
항아리 가장 아래에 두고 그 위에 다른 물건들  
을 쌓은 뒤 마루 밑에 감춰뒀다가 귀환한 정병  
욱 선생에게 이를 건넸고, 이는 운동주의 첫 시  
집이자 유고시집이 되며 세상에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됐다.

글벗의 시흔을 지켜준 우정이 담긴 이야기  
속에서 육필 원고를 꽁꽁 숨겨둔 어머니는 어  
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한글로 된 원  
고를 들켜 혹시나 아들이 고초를 당하진 않을  
까 노심초사하며 이를 숨겨둔 것은 아닐지, 송고한  
모정을 짐작해 보며 가혹을 나서니 저기 배알도가 보인다.

같은 물길을 끼고 있는 작은 포구마을과 작은  
섬이 입을 모아 '부침 없는 이야기는 없다' 말하는  
이곳이야말로 한 해를 시작하거나 정리하는  
겨울 여행에 꼭 알맞겠다.

# 냉소와 분열의 미국을 들여다보다



나의 미국 인문 기행

서경식 지음 | 반비 | 264쪽

사람은 떠나도 글은 남는다.

2023년 12월 18일, 디아스포라 에세이스트 서경식이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서경식의 죽음에 슬퍼한 것은, 그가 생전 날카로운 사유를 벼려낸 특유의 아름다운 글로 제자리 없이 헤매는 수많은 이들에게 베이자 스승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라. 이처럼 많은 이들의 베이자 스승이었던 우리 시대의 경계인, 서경식의 유작 '나의 미국 인문 기행'이 출간됐다.

'나의 미국 인문 기행'은 '나의 이탈리아 인문 기행', '나의 영국 인문 기행'에 이은 '나의 인문 기행'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책이다. 언제나 그의 글에는 현실에 대한 참여하고도 치열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나의 인문 기행' 시리즈의 이전 책들 또한 인문주의의 의미, 신민주의와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통찰들로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나의 미국 인문 기행'에서는 그가 전작에서 다뤄온 주제들에 더해, 자유와 환대의 가치를 내건 미국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세계가 마주한 암울한 현재에 대한 사유가 특히 빛난다. 서경식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재난과 전쟁 범죄, 국가 폭력의 끔찍한 현실 속에서 "도덕의 거처"를 묻는다.

이 책에서 서경식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인 2016년과 학생운동을 하던 중 수감된 두 형(서승과 서준석)의 구명 활동을 위해 미국을 오갔던 1980년대, 그리고 코로나19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2024년 숫자 전광판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며 "쓰고 그리는 일"의 의미를 묻는다.

"예술가는 항상 오만함에 맞서는 기가와, 시파 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모멸의 태도를 갖춘 자"라는 벤 산의 말처럼, 서경식이 불러낸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부정의에 맞서고 선의를 나눌 줄 아는 '인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미국에서 그가 발견한 관용과 연대, 공감의 조각들은, 우리를 "자기중심주의와 불관용"의 세계가 아닌 "복수의 문화가 부딪히는", "환대와 자유"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긴 악몽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의 말대로 세계는 '긴 악몽의 시대'에 들어섰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은 매일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다.

폭력이 진부해지는 세계, 죽음이 식상해지는 세계를 염려하는 서경식이 이번 책에서 집어든 이름은 '에드워드 사이드'다. 팔레스타인계 아랍인이자 기독교인, 미합중국 국민이었던 사이드는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팔레스타인 민족 편에서 항상 싸웠다. 서경식은 책의 마지막 두 장을 할애해, 거의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이드의 삶과 저술을 반추한다. 이를 통해 '타자'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아 과거와 삶을 쌓아나가는 세계에서, 체념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운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긴다.

최민식기자 cms20@mdiboo.com

## 새책안내

출판의 배신

오지의 지음



▲ "왜 넣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아무도 말을 안 해줬을까요?" 의사, 아기 엄마, 과학 커뮤니케이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집에선 애를 본다. 아기가 잘 때 글을 쓴다. 그렇게 쓴 글을 모아 낸 산부인과 의사 오지의의 '출판의 배신'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왜 이토록 힘겨운 것인지,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유 등 재생산의 전 과정을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산모의 진통 시간(첫째는 평균 9시간, 둘째는 평균 6시간)도 긴 데다 난산(難產)이다. 세상으로 나와서도 너무나 미숙하고 유약한 탓에 오랜 시간을 옆에 볼어서 둘어야 한다. 아이도스/ 252쪽

근대 용어의 탄생

윤혜은 지음



▲ 민주주의를 이념 내지 는제도 발원지 영국이나 그 밖의 유럽 나라들의 언어로 바꾸면 'democracy'(영어), 'democratie'(프랑스어), 'Demokratie'(독일어), 'democrazia'(이탈리아어), 'democracia'(에스파냐어)다. 형태만 다를 뿐 사실상 모두 같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 말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어 'demokratia'는 'demos(平民, 인민)'와 'kratia(지배, 통치)'가 결합된 형태다. 말의 형태 그대로 뜻은 '평민/인민의 지배'다. '근대 용어의 탄생'은 근대 문명의 키워드, 말의 역사를 다룬다. 민주주의,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어디에서 출발하여 도착했는지 탐사·수집한 근대 용어의 계보를 찾는다. 교육서가/ 312쪽.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유찬영 지음



▲ 증여를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 는 엄청난 세금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 세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 100억 원을 물려 준다면 세금을 무려 50억 원이나 내야 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데 이 방법도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짓을 수는 없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약 50년간 세무사로 활동한 국내 증여세 1인자 유찬영 세무사가 증여 상속 시 가장 궁금해하는 40가지 질문에 답한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행태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412쪽.

영과 영원

신주희 지음



▲ 신주희 작가의 첫 장편소설 '영과 영원'은 제 삶을 손에 쥔 세 여자 해나, 마나, 경희 이야기다. 지난 2012년 '작가세계' 신인문학상에 단편 '점심의 연예'로 등단한 작가는 '모서리의 탄생', '하늘' 등의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편소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을 오리너구릿과, 오리너구릿속, 오리너구리종 같은 여자들의 이야기'다. 오리너구리가 오리에게서도, 너구리에게서도 자유로워져 오롯한 자기 자신의 종(種)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등장인물들에 투영돼 있다. 문학평론가 고영직이 말한 바와 같이 "살던 대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시간을 '회전(revolution)'하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교육서가/ 288쪽.

직업을 떠려치운 여자들

이슬기·서현주 지음



▲ 사회/젠더 전문 기자 이슬기와 교사 출신 작가 이자 성교육 활동가 서현주가 여자들이 갖기 좋은 직업의 세계에 진입했다가 알을 깨고 나간 이들의 경로를 연구한 다학제적 결실을 내놓는다. 여성 종사자가 남성 종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여초 직업이라 일컬어져 온 교사, 간호사, 승무원, 방송작가가 직군에서 왜 여성들이 많이 일하게 되는지 진로 선택 단계부터 가해져 온 억압의 기원을 파헤치고 있다. 좋은 인식으로 포장되어 온 교사, 간호사, 승무원, 방송작가가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었는지를 과거와 현재에서 서로 공명하는 퇴직/재직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동아시아/ 268쪽.

## 이 책 어때요

### 돈이 들지 않는 최고 마케팅 '글쓰기'

무기가 되는 글쓰기

배작가 지음 | 디산북스 | 496쪽



글쓰기가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이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의 대면 영업 방식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되풀이한다고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마주 보고 판매할 때 동원하던 비언어적 요소를 온라인에서는 언어적 요소로 전환해 드러내야 소비자 지갑을 열 수 있다.

'무기가 되는 글쓰기'의 저자는 글쓰기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말한다.

저자 자신의 몸값을 올린 비결은 바로 '팔리는 글쓰기'다. 글을 돈으로 전환하는 공식을 발견한 저자는 와디즈, 클래스101을 비롯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로 주목을 받아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수익화 글쓰기 노하우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온라인상에서 글쓰기 만으로 억대 매출의 성과를 냈던 경험과 실전 사례를 소개한다.

새로운 형식을 시도해 하루 만에 1억 원을 돌파

았다. 저자는 이 방법을 책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며 세밀하게 설계한 글로 고객의 구매 전환율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저자가 온라인상에서 글쓰기만으로 억대 매출의 성과를 냈던 경험과 실전 사례를 소개한다. 처음 글로 돈을 벌었던 경험은 브라운대 동문과 비교해서 시급을 3배로 받았던 대학생 시절 과외 구인 글이었다. 새로 운 형식을 시도해 하루 만에 1억 원을 돌파한 상세 페이지의 도입부, 동료의 강의를 대신 팔아주며 수강생을 모으고 강의 시작 공지부터 복습 안내와 후기를 유도하는 메시지까지 가감 없이 공개한다.

2부에서는 이 구조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A (Articulate) 단계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고객에게 또렷이 인지시키고, B(Brainwash) 단계에서는 논리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 C(Connect) 단계에서 다양한 카피로 제품을 노출해 고객과 연결되며, D(Delight) 단계에서는 구매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형식을 갖춰 고객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3부에서는 이러한 ABCD 구조를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마케팅을 설계하는 전체 과정에서 기획자와 크리에이터, 마케터와 운영자의 시선으로 ABCD 구조를 적용해 본다.

최민식기자 cms20@mdiboo.com

### 떠나간 이들이 남긴 삶의 의미

남겨진 것들의 기록

김새별·전애원 지음

청림출판 | 272쪽



누구나 사는 동안 이별을 맞는다.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 김새별과 전애원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출간 후 7년여의 이야기를 담은 후속작 '남겨진 것들의 기록'으로 돌아왔다. 외로이 떠난 이들의 마지막 자리를 정리하는 일을 25년이 넘도록 해오고 있지만 그들의 사연을 대신 말해주는 유품을 정리할 때면 여전히 안타까움과 먹먹함이 밀려든다는 저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을 배웅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의 의미,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도 다루지만, 이번 '남겨진 것들의 기록'에는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나자막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 바라는 마음이 더욱 진하게 담겼다.

주변을 돌아볼 여력도 없이 숨 가쁘고 버거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생명의 소중함이나 생의 의지마저 희미해질 때가 있다. 그런 우리에게 신간 '남겨진 것들의 기록'은 진정 나에게 가치 있는 것, 생의 소중함, 내 결의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를 새삼 되돌아보는 끊임 없는 시간을 선사한다.

김새별 저자가 찾는 현장에는 그게 어디든 마지막 순간을 외로이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품은 저마다 다르게 물들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준다. 강박장에로 집 안에 물건을 가득 쌓고 살아온 중년 여성의 쓸쓸한 마지막, 멋진 어른으로 살고 싶었지만 마음의 그늘에 짓눌려 끝내 세상을 등진 청년, 이혼 후 두고 온 아들을 잊지 못하고 밤새 대문 앞을 지키던 치매 노인의 애끓는 모정이 깨져가는 순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우리 이웃의 안타까운 모습이자, 어쩌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초상이다.

그래도 저자는 그냥 손놓고 어두운 미래를 기다리지만 않는다. 떠나간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책은 역설적이게도 시작을 이야기한다. 쓸쓸한 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 조금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 서로를 굳게 붙들어주는 연대를 바라는 마음이 책 곳곳에 알알이 새겨져 있다.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갈무리하고, 그동안 맷었던 고마운 인연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단정하게 세상과 이별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자 베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최민식기자 cms20@mdiboo.com

# 당신에게 히잡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낯선 '히잡' 문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오는 3월 17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 시설2에서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전시 '살람, 히잡'이 개최된다. '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진 '살름'은 평화를 의미한다.

국내 최초로 히잡에 주목한 이번 전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종교에 기반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고, 우리와 다른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전시다.

이슬람교는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 전 세계 57개국 18억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

흔히 이슬람이라고 하면 중동·아랍문화권 만을 떠올리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아시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시에선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의 복식문화 중 가장 상징적인 의복인 '히잡'에 대해 소개한다.

무슬림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히잡은 히잡은 얼굴 노출 정도, 천의 길이, 같이 입는 옷 등에 따라 차도르, 니캅, 부르카 등으로 분류된다.

나라와 민족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 히잡으로 통용되는데, '가리다'라는 뜻의 아랍어 동사 하자바(hajaba)에서 파생된 단어다.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한눈에 무슬림임을 드러내며 그 자체로 경계와 배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ACC '살람, 히잡' 3월 17일까지**

**국내 최초 무슬림 '히잡' 조명**  
이슬람 문화권 복식문화 상징  
꾸란 등장하며 종교적 재해석  
얼굴 노출 정도 따라 분류돼  
예멘작가 작품, 여성억압 비판



국내 최초로 '히잡'을 주목한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전시 '살람, 히잡'이 오는 3월 17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전시장 모습.

이슬람의 발상지인 아라비아 반도는 척박한 환경 속에 뜨거운 태양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상문화가 발달했다.

지역적 관습이었던 히잡은 이슬람이 제도화되고 히잡 착용이 꾸란에 등장하면서 종교

적으로 재해석됐다.

전시에선 무슬림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용도로 차도르, 니캅, 부르카 등 다양하게 불리는 히잡과 '꾸란' 속 히잡의 내용,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히잡 착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무슬림 여성들의 인터뷰와 히잡과 관련된 이슈영상 등을 통해 각각으로 조명한다. 꾸란은 아랍어 동사 '읽다, 암송하다'는 동사 'qara` a'에서 파생된 단어로, 114수라(장) 6천342아야(절)로 구성돼 있다.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신에게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 모든 신자들은 아랍어로 된 꾸란을 외워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예멘 출신 사진작가 부수라 알무타와겔의 '엄마, 딸, 인형'이라는 작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

작가는 9점의 사진연작으로 이뤄진 작품을 통해 히잡이나 히잡을 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닌 히잡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존재를 지워나가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앞서 전시의 일환으로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 앞에서 '히잡 퍼스널 컬러 진단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국내 1호 모디스트 디자이너이자 히잡 퍼스널 컬러를 개발한 최윤선 디자이너가 참석자들에게 '히잡 퍼스널 컬러'를 진단했다.

이 외에도 전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 중 하나인 이란 이스파한의 세이크 로트 플라 모스크(Sheikh-Lotfollah Mosque)를 배경으로 히잡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볼 수 있었다. 이은우기자 redcow@mdiboo.com



민화계의 칸' 앙글렘만화축제 개막

한국작 '엄마들' '놀라운 방씨...' 후보에

'민화계의 칸 영화제'로 불리는 프랑스 앙글렘국제만화축제가 25일(현지시간) 개막했다. 한국 작품으로는 마영신의 '엄마들'과 박윤선의 '놀라운 방씨 아가씨'가 후보에 올랐다.

제51회 앙글렘국제만화축제는 이날 개막해 나흘간 앙글렘시 전역에서 다양한 만화 행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는 한국 만화로는 마영신의 '엄마들'이 공식 경쟁 부문 후보작에 이름을 올렸다.

'엄마들'은 50대 여성의 일과 사랑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흑백 만화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외려 가장 모르는 엄마의 세계를 다뤘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지난 2021년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미국 하비상 최고 국제도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아동 만화가 박윤선 작가는 '놀라운 방씨 아가씨'은 아동 부문 후보에 올랐다. 박 작가는 지난해에도 '부부와 친구들'로 최규석 작가의 '송곳'과 함께 앙글렘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후보작은 공식경쟁 부문에 45개, 아동 부문에 18개다. 이 가운데 최고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야수상'과 함께 '특별심사상' '시리즈상' '새로운 발견상' 등을 선정한다.

현재까지 앙글렘국제만화축제에선 지난 2017년 양꼬 작자가 '나쁜 친구'로 '새로운 발견상'을 받은 뒤 수상 소식이 없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에 앙글렘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뉴스

## 쉽게 완독 오디오북 베스트 4

통합 독서 플랫폼 월라 선정

통합 독서 플랫폼 월라가 2024년 새해 '작심삼일' 합정에 빠질 수 없게 쉽게 완독할 수 있는 베스트 콘텐츠를 소개한다.

출퇴근길과 취침시간 전에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 베스트4로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아' '말의 진심' 때가 되면 너의 정원에 꽂이 필 거야' '면의점 인간'을 선정했다.

또한 새로운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퇴근길 심리학 공부'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나의 첫 금융 수업' '기록의 쓸모' 등 교양 서부터 희망과 긍정이 담긴 에세이도 뽑았다.

월라 관계자는 "월평균 6,700명의 독서를 하고 있는 월라의 구독자들이 올해도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 '거대한 뿌리' 객원배우 공모

광주시립극단, 내달 14일까지

광주시립극단은 제22회 정기공연 우수창작극시리즈 '거대한 뿌리'에 참여할 배우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연기자 13명이다.

접수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 14일이다.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2월 16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필수과목은 지정연기, 자유연기, 면접이다. 노래에 능통한 연기자를 우대한다.

합격자는 2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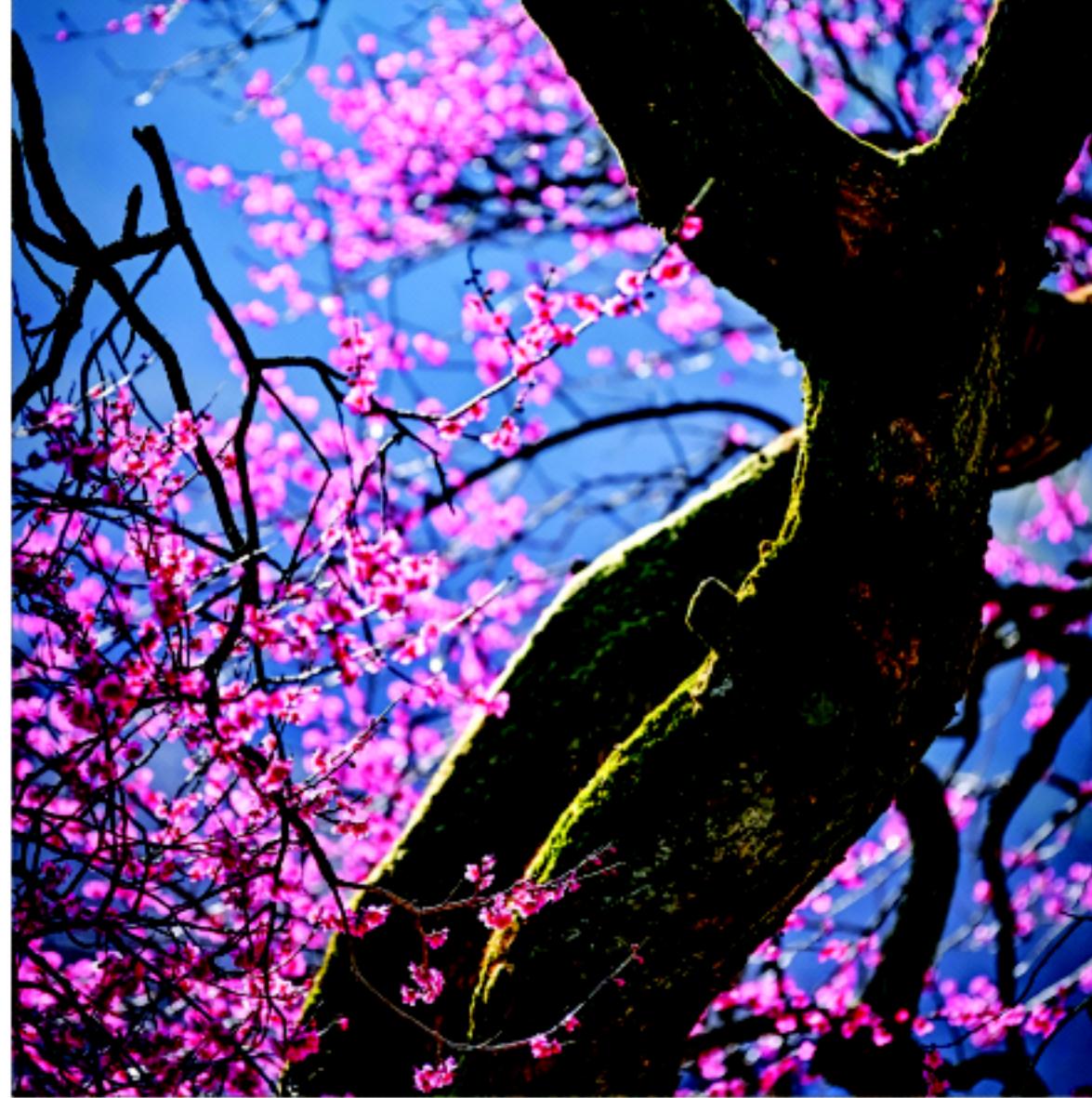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립극단 제22회 정기공연 '거대한 뿌리'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6·25전쟁,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등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를 겪어낸 김수영 시인의 삶과 시를 그려낸 작품이다.

'경숙이, 경숙아버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박근형 연출이 쓰고 극단 파수꾼 대표 이은준 연출이 연출하는 이 작품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총 4회 공연된다.

이은우기자 redcow@mdiboo.com

# 화엄사 명물 홍매화, 천연기념물 됐다



검붉은색·두 줄기 꼬인 수형 등  
학술적·경관적 가치 높게 평가  
경내 국가유산 17점으로 늘어

초봄이면 전국의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몰려드는 화엄사 홍매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홍매화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관심을 모은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스님, 이하 화엄사)는 전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가 화엄사 홍매화를 문화재 지정구역을 확대 지정해 국가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매화의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은 '구례화엄사 화엄매'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구례 화엄사 홍매화에 대해 ▲검붉은색과 두 줄기 꼬인 수형으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점 ▲자연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목의 줄기나 가지의 생육이 굴곡을 만들면서 위로 또는 밑으로 자라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나무들과 비교해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점 ▲기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중 검붉은 꽃은 화엄사 홍매화뿐인 점 ▲사찰 내 국보들과 연결돼 포괄적 대표 경관을 이루며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들어 국가유산 근현대 식물유산 발굴차 원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화엄사는 경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문화유산에 또 하나의 문화유산을 더하게 됐다. 화엄사는 목조비로자나 삼신불좌상, 영산회괘불탱, 각황전 앞 석등, 사자자삼총석탑, 각황전 등 국보 5점과 보물 9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번 홍매화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을 매화 1주, 올벚나무 1주도 경내를 밝히고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사증을 대표해 이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스님들과 함께 홍매화에 머리 숙여 예를 올렸다.

덕문스님은 "지리산 대화엄사 홍매화의 존재와 심미적 가치를 세상에 다시 알리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화엄사 홍매화는 해마다 피고 지고를 300여번을 하는 동안 국민에 한없는 감동을 가져다줬으며 특히 지난 3년 동안에는 코로나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큰 위안을 주기도 했다"며 "천연기념물이 된 홍매화가 맑고 청아한 기운이 화엄사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전해져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이번 제4회 구례화엄사 화엄매 사진 콘테스트를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 갖는다. 화엄사 내 홍매화와 들판화를 휴대폰 카메라 사진, 프로사진으로 부문을 나누어 콘테스트를 갖는 행사를 자세한 내용은 내달 15일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mdiboo.com

# 호텔 객실서 즐기는 아트 페어

광주 국제블루아트페어 25~28일  
라마다충장 호텔… 2천여 작품 선봬

부산과 대구, 경주 등 경상권에서 5년여 동안 펼쳐온 블루국제아트페어가 광주로 옮겨온다. 광주 국제블루아트페어가 25일부터 28일까지 라마다충장 호텔에서 열린다. 그동안 경상권 도시에서 진행돼온 국제블루아트페어는 올해로 광주를 두 번째 찾는다.

이번 아트페어는 30년 전통이 광주비엔날레 와 광주아트페어 등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예

항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작품 2천여점으로 채워진다.

사물과 자연의 시스템과 일상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작업하는 이의령 작가의 '다랭이는 탑부' 시리즈, 심병건 작가의 스틸 드로잉 조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미국의 다양한 아트 페어에서 주목받은 허혜숙 작가, 신비한 레진 아트 작업을 펼치고 있는 박혜진 작가 등 다양하고 신선한 시각의 작품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활약 중인 작가들과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다수 소개된다.

특히 이 작품들은 라마다 충장호텔 5~7층 객실에 전시돼 실내 인테리어와 작품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작품의 미감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실제 생활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감상할 수 있어 구매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아트페어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26~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티켓은 주관처와 참여 갤러리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국제블루아트페어는 블루아트페어 운영위원회와 부산도슨트협회, 대구도슨트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광주 동구와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광주시 의사회, 전남대 총동창회, 광주 미협이 후원한다.

김혜진기자 hji@mdiboo.com



박혜진 작 '해안'

# 광양제철소, '리얼밸류 경영' 선도 주목

올 상반기 탄소중립포럼 성료  
유관 부서 심층 집단토론 눈길  
전기로 신설·저탄소 기술 강화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동렬)가 지난 23일 광양시 백운산수련원에서 탄소중립 유관부서와 함께 '2024 상반기 탄소중립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렬 광양제철소장, 김기수 기술연구원장, 김희 탄소중립전략실장, 이백 전기로사업추진반장을 비롯한 포스코 탄소중립 관련 부서와 포스코홀딩스, 포스리 등 그룹사 임직원을 포함한 총 42명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탄소중립 포럼은 광양제철소가 탄소중립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켜 ESG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 가치를 창출하는 '리얼밸류 경영'에 앞장서고자 기획했으며, 유관부서와 긴밀한 집단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양제철소가 탄소중립 관련부서, 포스코홀딩스, 포스리와 함께 2024년 상반기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동향에 대한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그린스틸 ▲탄소중립 로드맵과 같은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부터 ▲수소환원제철(HyREX) ▲저탄소 Bridge 기술 ▲전기로 설계 및 사업추진현황,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사업 ▲철원류 수급 방안까지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6일 포스코가 해외 체권시장에서 3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

기로 신설사업부자에 투입할 예정인 만큼 전기로 신설과 관련된 기술토론도 함께 진행해 더욱 뜻깊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목적의 채권을 말한다.

이동렬 광양제철소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부서가 한 곳에 모여 의논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과 포함 등 면 곳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양제철소에 신설되는 전기로가 탄소중립을 향한 첫 발자국인 만큼 경쟁력을 갖추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이번 포럼뿐만 아니라 ▲통합허가 자율이행관리 협의회 ▲에너지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고로 열풍로 온도제어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양=이승천기자 lsc6100@mdilbo.com

## "귀농 창업·주택 지원, 2월 7일까지 신청하세요"

보성군, 관련 지원사업 확정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원

보성군은 다음달 7일까지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4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

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인 귀농 회망자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한다.

교육 이수 실적도 기준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 이수로 하향 조정했다.

농업 창업 자금으로는 최대 3억원을 융자·지원하며, 농지 구입·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신축·증개축(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사업 회망자는 구비 서류를 자침한 뒤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지원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정종민기자 jrm1511@mdilbo.com

## 공사장 용접 화재 주의 요청

곡성소방서, 안전수칙 준수 당부

곡성소방서는 겨울철 건설 현장 등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 온도는 1천600~3천도로 불티가 가연성 자재로 불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용접·절단·연마 등 불티로 인한 화재는 전국에서 993건이 발생했다.

건축 공사장은 작업환경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와 가스 등에 노출돼 있어 착화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흡연 금지' '소화기·방화포 비치' '가연물 적치 금지' '작업 후 1시간 이상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종천기자 jck4151@mdilbo.com



다"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순천=김혁선기자 balaboda@mdilbo.com

광주·전남 현안을 한손에 쥐세요  
강력한 웹·모바일 무등일보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장흥군 제공

##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 사랑의 광주리 전달

독거어르신 등 40가구 직접 방문  
과일·밀반찬 등 후원 물품 기부

생활관리사들이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및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40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밀반찬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방지영 장흥읍장은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에 아낌없는 후원과 봉사해 주시는 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장흥읍 지역사회에 온기가 가득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흥=김영분기자 hun6101@mdilbo.com

## 화순 '맘 편한 100원 택시' 카드로 결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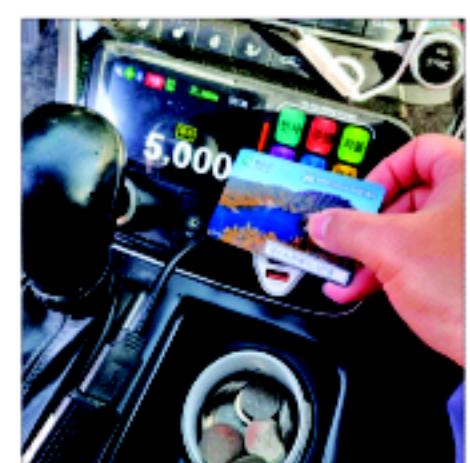
78개 마을 1천186명 이용  
이용금액 1인당 월 5만원

화순군은 25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맘(Mom) 편한 100원 택시'의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이나 광장으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통서비스다. 현재 78개 마을을 1천186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100원 택시는 쿠폰을 이용자에게 배부하고 택시 사업자가 쿠폰을 첨부한 정산서를 읍·면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택시사업자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 136대 모두 앱 미터기로 교체했으며 지난달 말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100원 택시 이용 금액은 1인당 월 5만원으로, 교통카드와 함께 100원을 지출하면 된다. 월 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100원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탈 수 있고 택시사업자도 영수증 청구 간소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mdilbo.com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교민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교 교단, 환경부·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공동본부 출범 2022. 4. 26

**CBS**  
Media Group

# 목포시의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제동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  
시내버스 안정 노선권 매입  
필요성 인정·소통 부족 지적

목포시의회는 최근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과 함께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로 제동이 걸렸다.

목포시는 최근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계약 동의안에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 및 고용 승계,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노선권 및 중고버스·CNG 충전소 매입,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의 임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노선개편을 위해 주민 설문회와 학부모 및 노인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통해 노선권 공영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속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또 재정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자문절차를 거쳐 시의회 대중교통 정책 방침을 최종 결정 후 시의회에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특히, 민영 노선권의 공영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시민 공론화위원회도 함께 참여하는 등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시의회, 시민공론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정평가 평균 약 210억 3천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목포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부터 시의원 및 법률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을 구성 추진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시는 노선권 매입액 조율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 회사의 비상경영체제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 구조로 매입액인 210억 3천만원이 태원·유진 법인의 부채총액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 퇴직급여(143억원), 금융권 부채(73억원) 등 외부 차입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

스템의 전제조건인 노선권 매입 등이 담

겨있는 계약 동의안의 필요성을 인정하

면서도, 시민 소통 부족 등의 의견으로

계약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소관 상

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목포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로부터 시의원 및 법률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을 구성 추진하고, 사안의 시

급성을 감안해 2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목포=박민성기자 mspark214@mdibbo.com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함평군에 인재양성기금 기탁

지역 미래 이끌 학생들 후원

거듭나는 데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단체다.

김행민 국화동호회 회장은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밀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상익 군수는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시어서 감사하다. 뛰어난 숨은 지역 인재의 성장과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정창현기자 jch3857@mdibbo.com

## 해남군, 'K-브랜드 어워즈' 축제관광도시 수상

국가 경제발전 기여 우수 브랜드  
체류형 로컬관광 성과 탁월 인정

영암군은 내달 5일까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에서 '설레는 혜택 가능한 날'을 주제로 '2024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영암 특산품으로 설 명절 감사의 마음을 나누도록 마련한 파격 할인전.

영암 한우 선물세트를 포함해 농·축산물 가공품, 배, 유기농 쌀, 고구마 등 205개 특산품이 영암몰에서 판매된다.

영암몰에서는 현재 모든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1인당 3장 배부하고 있다.

영암군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회원가입 적립금 2,000원을 지급하고, '올해 다짐' '신년 계획' 등 댓글과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할인 행사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할인 기간 내에 구입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전국 최고의 특산물을 장만할 수 있는 영암몰에서 알뜰한 셀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몰은 2021년 4월에 개설돼 지난 해 11월말 기준 93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mdibbo.com



해남군은 최근 '2024 K-브랜드 어워즈' 축제관광도시 분야를 수상했다.

해남군은 사계절 축제 완성을 바탕으로 체류형 로컬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면서 축제관광도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남군은 사계절 축제로 봄에는 달마다 힐링축제, 여름이 공룡대축제를 개최했으며 여름에는 송호해변 여름축제, 명량대첩축제, 가을에는 오시아노 뮤직 페스타와 해남미남축제를, 겨울에는 땅끝 해님 헤맞이 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대표 축제인 명량대첩축제와 해남미남축제에서는 관광객 연령층이 한층 더 젊어지고 방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사

계절 동안 끊임없이 개최되는 축제와 특색있는 퀄리티 콘텐츠로 대한민국 맛과 멋을 대표하는 축제 도시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어워즈 세부평가에서는 개별 관광 선호 증가에 대응하는 전국 최초 캠핑카 시티투어 '해남으로 가는 꿈카'와 2년 연속 공모 선정된 체류형 로컬관광 프로그램인 '땅끝마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2023~2024년 동안 문화관광분야에서 2024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3년 연속), 2023 SRT 어워드 대상(최고의 여행지 2년 연속),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순례문화관) 2023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가고싶은 도시), 2023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2년 연속), 2023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축제관광분야)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수상은 우리 군이 축제관광도시로 브랜드를 인정 받은 결과이다"며 "킬러 콘텐츠를 강화한 사계절 축제 추진과 꿈카, 땅끝마실 등 체류형 로컬관광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해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윤정식기자 yjbc2000@mdibbo.com

## 진도 조도보건지소,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호응

심정지환자 병원 후송 살려내  
119와 협력 지역민 안전 성과

진도군 조도보건지소가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로 섬 주민들을 위해 일자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오는 지난 23일 저체온 상태로 조도 119를 통해 내원한 환자를 위해 해경에 항정 출항을 요청했다.

환자는 의식이昏迷하고 기본적인 건강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위급한 상태였고, 보건지소에서 즉시 정맥주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날씨는 강풍, 대설주의보 등으로 기상악화 상황이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만큼 악화돼 조도면사무소와 해경 출항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해경을 기다렸다.

그러나 해경 항정 출항 연락을 받고 응급 의약품 등을 준비해 어류포항을 출발하는 순간 환자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

조도 119 구급대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의사와 간호사가 동행하며 어류포항을 출발, 진도항에 도착해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조도보건지소는



진도군 조도보건지소가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로 생생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찬사를 받고 있다.

진도군=박민성기자 hm759@mdibbo.com

## 사랑방 입점 우수업체

힘들게 발품팔지 말고 사랑방에서 찾자!

# 똑똑하게 우리면접

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적 서비스로 최저가를 비교해 보세요.



광주GB인테리어  
062)366-6736

숲디자인  
062)464-3324

신영디자인  
062)954-6267

디자인 대명  
062)375-0407

디자인-하루  
010-5118-6258

디자인 투온  
010-8814-5714

대찬산업개발  
010-9635-9135

디자인 한빛  
062)383-8525

송하건축  
010-8811-2064

디자인 화정  
062)401-0485

행복공간인테리어  
010-6214-0042

현대인테리어  
010-3162-4510

K건축자재백화점  
062)943-0050 (건축&인테리어 사업부)

홈앤주방가구디자인  
010-3780-8909

## 사랑방 입점 우수업체

絮디자인그룹예아  
062)654-7412

누리개발  
062)528-0455

디자인 쏘울  
062)401-0488

희망인테리어  
062)262-2349

絮아트하우스  
062)971-8705

메종인테리어  
062)515-5601

디자인도시공간  
062)676-6617

사랑방 광고문의 510-4500

사랑방 광고문의 510-4500

사랑방 광고문의 510-4500

무료견적상담 GO

스마트폰 카메라 켜고 QR코드 비추기

① 사랑방닷컴 → ② 인테리어 → ③ 견적받기  
housing.sarangbang.com



# 광주를 AI 실증도시로… 각계 브레인 총집결

분야별 전문가 16명 '2기 출범'  
인공지능산업 발전 계획·지원 등  
“지역 목소리 담는 역할에 앞장”

광주시를 인공지능 실증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제2기 인공지능산업위원회는 1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강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새로 구성됐다. 특히 산·학·연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해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기 위원회는 광주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 기술 및 융합 지원, 인공지능기업 지원 등 심야·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 2단계

(2025~2029년) 추진을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공동위원장으로 김경백 전남대 AI융합대학 교수 가, 부위원장은 김종민 인공지능학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김경백 공동위원장은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인공지능산업위원회 2기가 출범하게 되어 뜻깊다”며 “위원회 위원들이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1단계와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기획용역 추진현황보고, 의견수렴 및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에 대한 2단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

고, 광주가 AI 실증도시로서 대한민국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역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인공지능을 빼 일상, 기업, 산업은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는 산업계와 기업계, 정부에서 AI 거점도시로 인정받으며 한발 앞서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지역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내 유일의 AI 실증도시가 되도록 2기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세계적 수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개관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또 2025년부터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6천원을 토입, 기반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AI 실증도시를 구현한다.

박석호기자 haita2000@mdiboo.com



광주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롯데百 광주점서 타조알 구경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하1층 푸드에비뉴에서 이색 상품 타조알을 선보인다. 타조알은 필수아미노산과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광주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타조알 1개는 약 계란 한판 정도의 양으로 일반 계란 요리처럼 찜, 말이 등으로 즐길 수 있다.

롯데쇼핑 제공

## 삼성전자, 英 ‘브리티시 가스’와 협업

‘스마트싱스’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삼성전자가 영국의 에너지 공급업체인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와 에너지 절감 솔루션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0년 이상 영국 가정에 가스·전기 등 에너지를 제공해 온 브리티시 가스는 에너지 공급 외에도 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함으로써 영국이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에너지’ 솔루션과 브리티시 가스가 추진하는 수요 반응 서비스인 ‘피크 세이브’를 연동해 영국 소비자들은 손쉽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피크 세이브는 겨울철 전력 소비가 높은 시간 대에 전력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가전제품을 AI 절약 모드로 전환하거나 가전제품이나 조명, 스마트 플

러그 등의 전원을 끄거나 히트펌프 EHS나 파트너사의 온도 조절기로 대내 온도를 조절하는 등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나주시와 협력해 주민 수요 반응 서비스 사업에 참여해 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도 DR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세계 각지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스웨덴의 브로비흘름 스마트시티, 서던 컴퍼니의 미시시피 프로젝트 등에 넷 제로 흡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바차를 기하고 있다.

독일의 태양광 기술·저장·충전 기업 SMA 솔라 테크놀로지, 스위스의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ABB 등 대표적인 넷 제로 흡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CES 2024에서는 테슬라와의 협업도 발표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boo.com

## 봉선 삼익2차조합 “리모델링 규제 완화 촉구”

정부 부동산대책에 관련 정책 빠져  
“신속 추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호남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봉선 삼익2차 리모델링조합(이하 조합)은 25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리모델링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운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석 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화된 전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벽체 균열, 녹슨 상수도, 낮은 단열 성능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현법에 보장된 주거 권을 저해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 대책 중 유일하게 리모델링 규제 완화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수년이 걸리는 수직증축 안정성 검토기간을 단축할 제도가 마련될 경우 사업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boo.com

정 조합장은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과 수직증축 요건 완화,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내력벽 철거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합원 전체에게 유익한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직 증축 방식으로 기존세대보다 58세 대 늘어난 448세대로 추진 중인 봉선동 삼익2차(가칭 e편한세상 봉선 리더스)는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 완공할 예정이다.

## “광주 경제·일자리 살리자”

일자리재단·대한상의 인력개발원 MOU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25일 재단 최상준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루상 광주인력개발원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체결과 함께 지역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전략사업의 필요성, 새로운 전환 시기를 이끌어 갈 디지털 경제수도 광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내용은 지역 중·소상공인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지역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청년센터 취·창업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이다.

한경국기자 hkk42@mdiboo.com

**생활의  
플러스**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다!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78x144 - B형 : 78x68

###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 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son.co.kr](http://www.ajucs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 태양광 발전소

•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매일 연금식 소득 발생

분양 사업주 급모집

- 나주 봉황 와우리
- 경북 예천군 마촌리
- 장흥 버섯 재배사 분양
- 100KW 9구좌 분양
- 30KW 4구좌 분양
- 100KW 6구좌 분양
- 700KW 1구좌 분양
- 태양광 지붕 임대 발전사업 모집
- 태양광 무자본 시공 건축을 임대

상담 문의

유니솔라 에너지

H. 010-9340-5519 ☎ 062)672-5519

<http://unisolar21.com>

### 거인의스프레스

소개하고 소개받고 싶은 이사전문회사!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1%가 부족한 99%의 만족은 만족이 아닙니다.

- ① 1톤 용당 이사 헛병
- ② 포장 → 폴리B, 바구니, 티가BOK, 화물봉투, 포장
- ③ 운송 → 1~4톤 풍, 대형 풍, 헬기, 신, 민전 풍
- ④ 청소 → 스팀청소로 깨끗하게 마무리

상의 대 표 062)264-2424, 080-5234-2424

서비스 : 애어린 분리, 실균소독, 박각이TV 전용카메라장 및 카페에 이르기까지 원격 파악

문의 : 062)264-2424, 080-5234-2424

# 중흥그룹, 중흥토건 중심 지주사 체제로 구축



Cheongwonju, Chairman of Daewoo Construction

‘중흥·대우’ 투트랙 경영활동 지속  
해외시장 시행·시공 디벨로퍼 성과  
서울·수도권 영향력 확대 ‘과제’

지역 건설사라는 한계를 딛고 대기업집단 20  
위로 성장한 중흥그룹이 2세 승계로의 과정을 순  
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중흥그룹은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는 시선에  
도 대우건설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으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분투 중이다. 계열사를 동  
원한 소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찰 의심도 있  
지만 강력하게 경제하고 있는 만큼 새 사업 모델  
찾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대우  
건설 인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기

때문에 지분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  
리 과정에서 창업주인 정창선(82) 회장에서 정  
원주(56)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으로의 승계를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룹은 크게 정 회장이 최대주인 중흥건설과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한 지주  
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흥건설 계열사들은  
중흥건설에 완전히 종속되는 형태를 만든 뒤 중흥  
건설과 중흥토건의 관계를 정리해 지배구조를 완  
성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계열사가 된 대우건설  
도 중흥토건이 40.6%, 중흥건설이 10.15%의 지  
분을 확보해 인수가 이뤄졌다.

중흥토건을 정점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로 전  
환되며 정 부회장의 지배력도 강화된다. 정 부회  
장은 2019년 헤럴드 회장, 지난 6월 대우건설 회

장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그룹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대우건설에서 특히 해외 사업 영  
업맨을 자처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 부회  
장은 지난해 미국 등 북미,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  
카,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10여개 국가를 직접 방문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  
축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시무식에서 “단순 시공만으로는 이윤  
확보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해외시장  
에서도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딜로퍼로 성과  
를 거둬야 한다”며 “해외에 답이 있고 해외에서 흐  
로에 힘을 같이 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의 장남인 정정길(26)씨는 대우건설  
에서 일하고 있다. 2021년 중흥건설에 대리로 입  
사한 정씨는 2022년 대우건설에 부장으로 입사

해 지난해 11월 단행된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하  
면서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달았다. 정 상무는 북  
미해외사업 영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투트랙으  
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흥그룹이 지금까지 사세를 키운데에는 해  
외, 정부발주 SOC사업보다는 순천, 세종, 평택  
등에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성공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또 호남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서울 및 수  
도권에서 영향력을 기워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특히 서울 도시정비사업은 중흥이 성장한 방식  
인 택지입찰을 통한 주택공급과는 다르게 아파  
트 브랜드 선호도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분야다.

중흥은 서울에서 부지런히 깃발을 끊어 나가  
는 중이다. 뉴스

## 광주교통공사·㈜리트코 지하철 공기청정기 개발

전력소비 감소·청정효율 상승

광주교통공사와 ㈜리트코가 에너지와 예  
산을 절감하며 청정한 공기질을 제공하기 위  
한 ‘터널 내 환기구 전기집진기 능동운전 시스  
템 공통 개발’에 성공했다.

전기집진기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 등을 전기  
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장치이다. 광주교통공  
사는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에게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환기구 27개소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해 가능중이며, 향후 28개  
소에 추가 설치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더욱 박  
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사와 ㈜리트코는 기존의 전기집진기가 열  
차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6~24시까지 계속 가  
동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약 6개월간의 공동  
연구를 추진, 열차가 운행할 때만 가동되는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풍향풍속계와  
미세먼지 센서가 환기구내 풍속과 미세먼지 농  
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 전기집진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공인기관 성능시험 결과 이번 시스템 활용을  
통해 전력 소비량이 기존 방식 대비 평균 41% 감  
소해 연간 약 2천200만원의 전력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진기 가동시간 감소로  
장치의 내구연한도 10년기량 증기대 10년후 주요  
장치 교체비용 29억원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기 청정 효율이 높아지면서 인  
체에 유해한 오존 발생량도 기존 방식 대비 60%  
까지 감소돼, 터널 내 작업자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석호기자 haita2000@mdiblo.com



(주)광주신세계는 지역과 상생을 추구하는 현  
지법인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 현장실습 문화 체험 “신세계서 일하고 싶어요”

광주신세계, 대학생 현장실습 성료  
지역 청년들 취업 돋기 위해 마련

“백화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 때문에 미래  
가 어두운 게 아닐까 걱정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광주신세계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문  
화와 체험을 주제로 한 여러 콘텐츠가 늘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백화점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  
했고 꼭 광주신세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전남대 의류학과 이우희 씨는 광주신세계에  
서 현장실습을 하며 백화점의 미래에 대해 새롭  
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  
는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된 모의면접이나 실제  
영업현장에서의 경험이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주신세계는 지역과 상생을 추구하는 현  
지법인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가장 인상적  
이었던 프로그램은 서비스 부서에서의 실전 경  
험이었다. 특히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VIP  
리운지를 체험하면서 광주신세계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감탄하며 제품은 물론 서비스  
의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백화점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자 지역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됐다. 한경국기자 hkk42@mdiblo.com

## 광주국세청, 전통시장서 설 장보기

자매결연 무등시장서 … 상인과 소통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산물 구매도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이 무등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물을 구매하는 모습. 광주국세청 제공

정 등을 방문해 성과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그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설명절 전에 취약 계층,  
미혼 모자 복지시설 등을 찾아 이웃 사랑을 실천  
할 예정이다. 도청원기자 repo333@mdiblo.com

## 광주TP, 지역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

오늘까지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지원 사업 설명  
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광주 TP는 그간 지  
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산업육성방향과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초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  
으나 올해는 특성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사  
업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 광주TP는 25~26일 ‘지역특화프로젝  
트 레전드(Region+end) 50+’ 참여기업 모집  
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김영진 원장은 “대내·외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많이 위축되었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니만큼 미래를 좌우하는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터닝포인트를 우리의 기  
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광주TP가 지역 과학  
과 산업의 거점기관으로 지역산업과 기술의 혁  
신을 주도하여 광주가 글로벌 퍼스트 무버  
(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겠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blo.com

# 광주·전남 미사견적도 사랑방 하나면 돼!

소형이사부터  
포장/보관이사까지!

① 하단 QR코드 스캔 후  
② 사랑방 이사 메인에서  
③ ‘견적상담 바로가기’ 클릭  
URL : 24.sarangbang.com

무료  
견적  
상담

- ① 하단 QR코드 스캔 후
  - ② 사랑방 이사 메인에서
  - ③ ‘견적상담 바로가기’ 클릭
- URL : 24.sarangbang.com
- 무료  
견적  
상담

## 사랑방 입점 우수업체

### 송산익스프레스

080)824-0024

북구 연양로 63-1 (용산동)

### 청년일자리익스프레스

062)953-0524

광주 동정로 300번길 15 (강서동, 고슬라 흥민사거리)

### 해피데이트랜스

010)3627-4024

서구 풍서로 290번길 20 (세하동)

### 솔밭익스프레스

062)653-2404

남구 회서로 21번길 3 (주월동)

### 킹콩익스프레스

062)527-0112

북구 반룡로 57 (용봉동, 용봉동 유장하이파크빌)

### 새한익스프레스

062)269-2222

북구 동문대로 452 (장동동)

### 365익스프레스

080)544-2400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86-7 (일곡동)

### 현대익스프레스-기아운수

062)265-5500

북구 설죽로 370번길 10 (도치동)

### OK익스프레스

080)502-1234

북구 실죽로 370번길 10 (오치동)

### 태성마스타

010)2330-2482

북구 실죽로 370번길 10 (오치동)

### 야호익스프레스

010)2274-2424

북구 우치로 311번길 4 (오치동)

### 혜성익스프레스

062)522-2424

북구 저불로 22 (용봉동)

### 신세계익스프레스

062)512-1234

북구 능언로 25 (오치동)

### 거인익스프레스

062)524-1424

북구 문신로 24번길 59 (문흥동)

### LG익스프레스

062)572-8900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30 (일곡동)

### 태평양익스프레스

062)227-2424

북구 양산택지소로 46-1 (본촌동)

### 평양익스프레스

080)962-1234

북구 일곡마을로 130 (일곡동)



# “전남 해양수산도시 경쟁력 확보 앞장”

목포해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해양IN(人) 커뮤니티’ 성료  
기업·창업관련 교원 30명 참석

목포해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목포신안비치 호텔에서 개최한 ‘해양IN(人) 커뮤니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목포해양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을 비롯해 전남지역 해양수산 기업체 및 창업관련 교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창업지원단은 전남지역의 해양수산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과 대학 창업지원단 간의 교류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IN(人) 커뮤니티’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목포대학교의 메이커스페이



스 활용 성공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전남 해양수산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식재산권 변화에 대한 정보 소개, 전문가들의 창업기업 멘토링을 통한 커뮤니티 확대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연원 창업지원단 단장은 “이번 해양IN(人) 커뮤니티는 참석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해양 특성화 대학교와 해양 관련기관·기업 간에 다양한 협력을 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목포=박민성기자 mspark214@mdlibo.com

## ‘당신을 위한 협회’ 제44대 광주전남기협 출범

회장단 구성… 교육·복지위 신설  
기자 효능감·권익 증진 목표

제44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류성호)가 ‘당신을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전남기협은 25일 광주 남구 광주문화재단 별관 소공연장에서 제44대 광주전남기협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장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외빈 소개와 협회장 인사말, 새로운 집행부 소개, 공로패 수여, 축사,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33명 회원분들과 힘을 모아 언론에 주어진 사회적 감시와 의제 설정의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며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협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전남기협은 지난 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팽대환 제43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신임 기협 집행부는 ▲수석부회장 김지율(광주일보) ▲부회장 장승기(광남일보) ▲부회장 김철원(광주MBC) ▲부회장 가수희(광주매일) ▲정보보도위원장 장아름(연합뉴스) ▲혁신위원장 김재현(KBC) ▲교육위원장 이은창(남도일보) ▲복지위원장 이수민(뉴스1) ▲2030위원장 최환준(전남매일) ▲공동편집위원장 백희준(광주일보) ▲대외협력 위원장 오광록(광주일보) 등으로 꾸려졌다.

총괄 사무국장은 양창희(KBS), 정책실장은

김정대(KBS), 동부·서부 사무국장은 각각 유대용(전남CBS)·양현승(목포MBC) 기자가 담당한다.

제44대 광주전남기협은 개인과 회사를 넘어 당당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기자들의 든든한 티리 역할을 하는 협회를 만들고자 한다.

동료들이 마음 놓고 기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목표를 세우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제43대 기협이 저널리즘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활동을 계승하고, 협회원들의 지원을 모아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경국기자 hkk42@mdlibo.com

## 광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로 방문

광주시의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위로·방문하는 등 따뜻한 명절 보내기에 나섰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정무창 의장과 심철의·이귀순 부의장, 강수훈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이 의회를 대표하여 이웃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자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무창 의장은 25일 하남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센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노고를 위로했다.

이에지기자 foresight@mdlibo.com



**무등 게시판 Tel: 606-7700 e-mail: mdlibo@mdlibo.com Fax: 383-8765 mdlibo7@daum.net**

보낼곳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SR8미디어빌딩 5층) 무등일보 생활정보담당자

**결혼** ▲정한성(신진화스너공업㈜ 대표), 오병란씨 장남 진목(신진화스너공업㈜ 이사) 군, 임광현(KBC광주방송 경영본부장 이사), 오지은씨 장녀 주연 양=2월 17일(토) 오후 12시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홀, 광주피로연 27일(토) 4시30분 위더스웨딩홀

**안내** ▲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학대피해 아동 일시 보호시설 ‘행복샘터’ 운영 등, 아동학대 상담 신고전화 112 2010-7777-323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062-369-4009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상담=매주 월~금 오후 5시까지, 신용불량자 등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무료상담 가능 062-226-9001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서비스

(주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무료제공·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 062-233-0468

▲광주동구중독관리센터=4대중독(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무료 상담 및 교육 062-222-4555, 222-5666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을건강 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중독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무료 상담. 062-413-119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062-526-3370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13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 대상 여성부지원 성폭력 전담기관. 응급진료와 상담, 치료, 자문번호사법

률자문까지 원스톱 제공. 062-232-1375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증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신고=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국가가 보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기입 안내=대상자 만 55세 이상(부부중 1인),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기초연금수급자는 조건 충족 시 우대지급. 상담 062-370-5760 www.hf.go.kr 수정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062-370-5742(내선 5742)

▲사랑애돌봄사업단=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 사업 진행, 대상 서구 구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 351-3029,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이 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광주환경운동연합 신임 공동의장에 조진상 명예교수

정기총회 성료… 사무처장에 김종필 국장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2024 정기총회’를 열어, 조진상(사진) 동신대 명예교수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조진상 신임 공동의장은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수행하게 된다.

조진상 공동의장은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과 탈핵, 영산강 재자연화,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생물 다양성 확대, 자원순환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연 회원을, 사무처를 총괄할 사무처장에는 김종필 생태도시국장을 선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을 대표하는 60여명의 운영 회원과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회원의 참여 활성화, 조직 및 정책역량 강화, 주요 환경의제 대응을 위한 전국 및 지역 연대에도 주력한다는 기조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과 탈핵,

영산강 재자연화,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생물 다양성 확대, 자원순환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현기자 wlog@mdlibo.com



## 담양 수북면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식

담양군 수북면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전재우)는 지난 24일 ‘협력과 연대로, 수북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수북면 사회단체협의회는 수북면 28개 단체가 연대해 지역사회에서 사회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사회단체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종천기자 jck41511@mdlibo.com



## 영암 왕인식품 김치 양념에 뉴요커들 엄지척

뉴욕서 남도 음식 홍보행사 개최

영암군 왕인식품이 만든 김치 양념이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남도 음식 홍보행사’에서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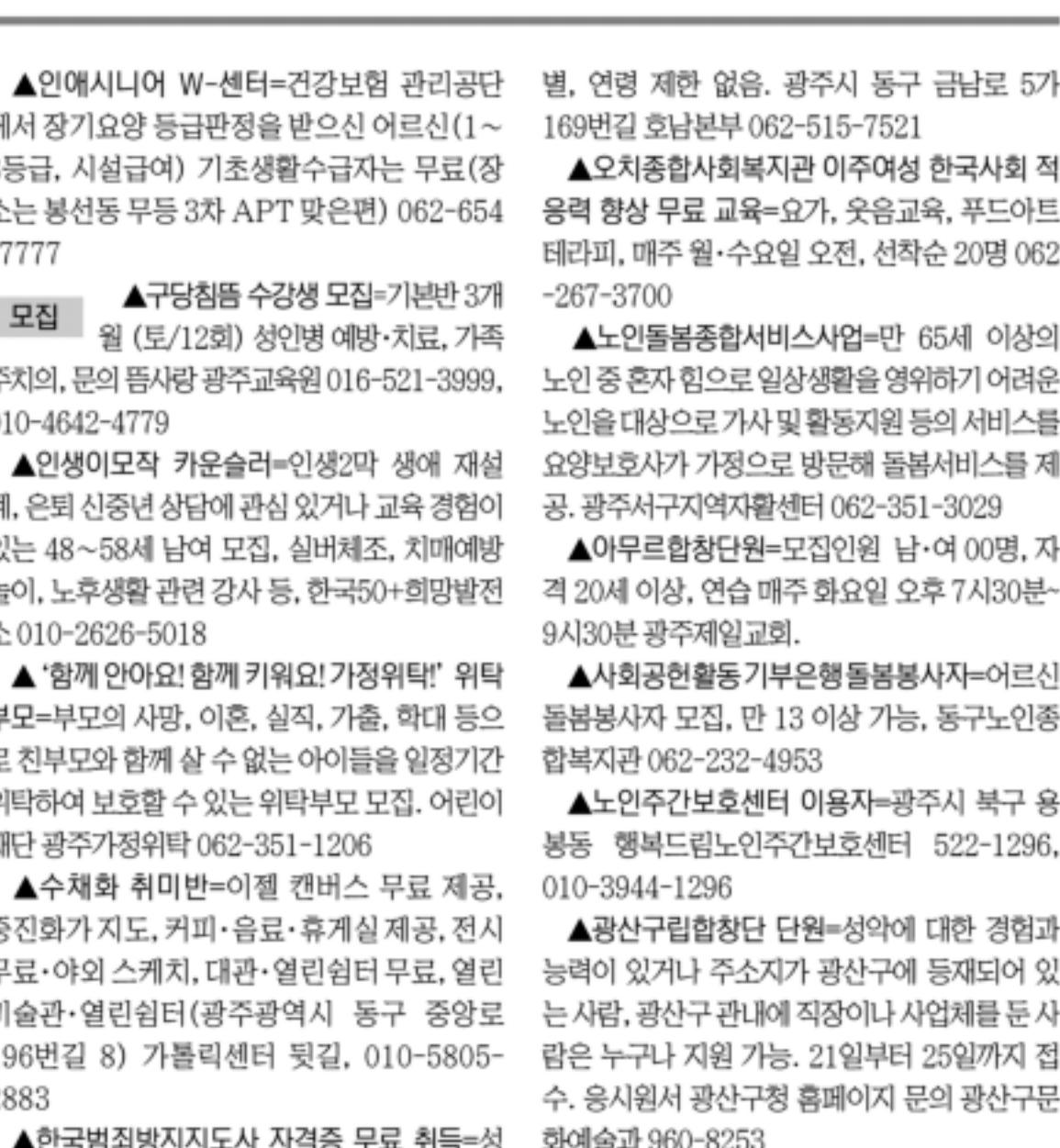
‘전라남도의 맛·남도 김치 양념의 현대적인 맛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전라남도와 뉴욕문화원, 영암군, 해남군이 공동 개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현지에 공수된 왕인식품의 수출용 김치 양념으로 남도 김치를 담그고 맛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관호 왕인식품 사장과 정재은 재미 한인 세프가 이 김치 버무리기 행사를 진행해 남도의 맛과 전통을 전하며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왕인식품은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에 4.2t의 김치 양념을 수출했고, 올해 160톤까지 수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광주·전남 김치업계 최초로 HACCP 인증시설을 갖춘 왕인식품은, 해마다 김치 품평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김철진기자 kcji14@mdlibo.com



# '반데르발스' 대칭 조절 가능성 최초 밝혀

지스트 이종석·서울대 박제근 교수팀  
물리학·스핀트로닉스 분야 발전 기대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게재



이종석 주희인 Kai-Xuan Zhang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은 이종석 물리·광과 학과 교수와 박제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연구팀이 스스로 자성을 떠면서 위상학 특성을 갖는 반데르발스 물질인 'Fe3GeTe2'에서 원자 빙자리를 이용해 물질의 대칭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강자성과 위상성질을 동시에 갖는 대표적 반데르발스 자성체인 'Fe3GeTe2'에서 철 빙자리에 의해 반전 대칭성이 깨지는 것을 제 2차 고조파 생성 기술을 사용해 검증하는 데 성

공했다.

반데르발스 물질계는 인접층 사이의 약한 결합력으로 인해 2차원 물리현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전도 현상, 강유전성, 자성 등 다양한 물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소자로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반데르발스 물질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성질의 여려 물질을 원자층 단위로 층층이 쌓아 다기능성 나노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또 연구팀은 공간군 분석을 통해 나사축 대칭성이 파괴돼 전체 구조의 반전 대칭성이 깨진다는 것을 규명했으며, 이러한 기작은 Fe3GeTe2 와 유사한 층상 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물질군에서 불순물을 통한 반전 대칭성 조절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원자 빙자리를 통해 물질의 반전 대칭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면서 "향후 물리학 및 스핀트로닉스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기초와 응용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게재됐다. 이정민기자 lm7da@mdiboo.com



## 광주대, 베트남 주요 대학과 글로벌 교육 교류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광주 대학교가 베트남 주요 대학과 글로벌 교육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광주대에 따르면 김갑용 부총장과 윤 인철·조정호 교수가 최근 베트남을 방문, 스위스 대학교와 학문적 문화적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연구·인큐베이팅·교류 분야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환학생 파견, 공동 기업과 정신 및 혁신 콘퍼런스, 공동 일자리 창출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양국의 창업기업과 교육환경 정보 공유 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대 방문단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은 CMC대학을 방문, 컴퓨터 분야 학생 교류와 복수 학위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광주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2023~2026년 교육 국제화역량인증대학으로 선정돼 해외 선진대학 교육 참여 및 자매결연 확대, 국제교류 활동,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광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사증발급 심사와 체류기간 상한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가산점 부여,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있다. 이정민기자 lm7da@mdiboo.com

## 강경화 전 외교장관, 美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발탁

러드 전 호주 총리 후임으로 4월부터 임기



강경화(사진) 전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새 수장으로 발탁됐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24일(현지시간) 이 사회가 강 전 장관을 9대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미국의 존 롤스터 3세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넓히고 교류를 강화

하기 위해 1956년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현재는 케빈 러드 전 호주총리가 회장직을 수행 중이며, 한국인이 회장으로 발탁된 것은 강 전 장관이 처음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강 전 장관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며 유엔에서는 세명의 사무총장에게 연이어 오직에 임명됐다고 소개했다. 존 손튼 이사회 공동의장

은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간 이해를 넓히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외교적 경험에 풍부한 인물을 리더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창립 이래 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비영리기구이며, 오늘날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의 임기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뉴스

## NH농협은행 광주본부, 2년 연속 종합업적평가 최우수 본부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2023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본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및 비이자수익 확대, 기업예신 1천574억 원 증액 등 사업량 크게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0.33%로 자산건전성에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박내춘 본부장은 "올해도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농협은행 광주 본부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천기자 jck4151@mdiboo.com



### 서구, 감염취약시설 코로나 백신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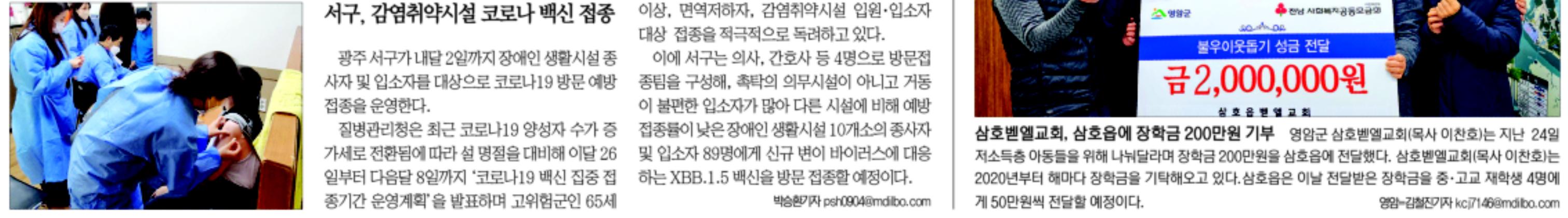
광주 서구가 내달 2일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문 예방 접종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설 명절을 대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기간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의사, 간호사 등 4명으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족족의 의무시설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많아 다른 시설에 비해 예방 접종률이 낮은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의 종사자 및 입소자 89명에게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XBB.1.5 백신을 방문 접종할 예정이다.

박승현기자 psh0904@mdiboo.com



44년생 차세하게 풀어야 될 것이다. 56년생 지정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하라. 68년생 도로 무공, 헛된 공이다. 80년생 뜻하지 않던 귀인의 도움이 있다. 92년생 나의 개성대로 해도 이루 어지리라. 04년생 너무 좋아 말라, 격에 맞지 않은 일이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33년생 문서를 취득할 운이 좋음이라. 45년생 욕심은 욕심을 낳는 법이다. 57년생 나의 인기가 다소 회복이 되리라. 69년생 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81년생 이성간의 미묘한 같동이 해소된다. 93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운.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34년생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운. 46년생 친구의 병 문안 후 상실판이라. 58년생 애인과의 여행 성사된다. 70년생 배우자의 말다툼은 서로에게 무익하다. 82년생 생각지 않던 일로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94년생 그것과 그것은 서로 들리니 포기하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35년생 지금 현재의 그것으로 만족하라. 47년생 괜한 일로 주위 사람의 오해를 산다. 59년생 아주 시원한 것을 맛보게 되리라. 71년생 그간의 나의 공을 인정받지 못한다. 83년생 결행하기 전에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 95년생 이성교제에는 청신호, 순조롭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 오늘의 운세 양력 1월 26일 금요일 (음력 12월 16일)

36년생 건강 주의, 혈압, 혈관 질환. 48년생 집안에 화재를 조심할 것이다. 60년생 상대방에게 먼저 점수를 따 두라. 72년생 표장, 포상 등이 있을 운이라. 84년생 자세히 살펴본 후에 결정하라. 96년생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지 말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37년생 다치지 않으려면 이성에 눈독들이지 말라. 49년생 이것이 바로 기회이니 꽂 잡으라. 61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운이 좋다. 73년생 나의 가식을 벗어 던지라. 85년생 친구와 적은 반드시 구분하라. 97년생 걱정 말라 곧 해결될 것이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38년생 할아서 다 할 것이니 걱정 말라. 50년생 재산증식이 되는 좋은 운이라. 62년생 지금은 먼저 휴식부터 취하라. 74년생 돈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생기리라. 86년생 돈도 해결되고 직장도 해결되리라. 98년생 그 일을 함께 하는데는 역시 친구밖에 없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39년생 5:5 동점, 좀더 노력하라. 51년생 움직인 것만큼 재산이 생기리라. 63년생 비밀리에 하던 연구 업적이 빛을 본다. 75년생 자녀의 경사로 잡아 이 화목해진다. 87년생 가족들과의 장거리 여행이 좋으리라. 99년생 구애하는 것 좋으니 결행하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용

40년생 건강 주의, 특히 폐 기관지 계통을 조심. 52년생 걱정하던 일이 깨끗이 해결된다. 64년생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76년생 친구의 곤경은 눈은 꽉 감고 모른 체 하라. 88년생 상사의 꾸중은 기끼이 받아 들이마. 90년생 내 몸도 충분히 떨어지니 걱정 말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뱀

41년생 표가 같으니 믿어도 좋으리라. 53년생 관계 구설 운, 언행을 주의하라. 65년생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 오히려 손해 본다. 77년생 한발 양보하라 서로 우하는 길이다. 89년생 직장 상사, 부모님의 신임을 받는다. 01년생 나의 의견이 관철될 것이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말

42년생 식구가 불어날 좋은 운이다. 54년생 지금이 대비할 마지막 찬스다. 66년생 빛일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고 보라. 78년생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90년생 자금 당장 구함은 것부터 털어 버리라. 02년생 친구와 밀다툼을 피하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양

43년생 계약은 성사되나 파기를 주의하라. 55년생 두 가지 중에 하나나만 선택함이 좋으리라. 67년생 금전상의 이익에는 이성을 조심하라. 79년생 상대방을 먼저 칭찬할 것이다. 91년생 상대를 너무 믿지 말고 노력하라. 03년생 현재 이성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 구박사인생클리닉 원장 구홍덕 박사 010-8010-1777



원숭이



토끼



개



돼지

### 오늘의 날씨

동네예보	
광주	목포
오전	오후
6	6
30	30
30	30
20	20
여수	완도
오전	오후
8	8
0	20
20	20
20	20
순천	나주
오전	오후
9	9
10	20
30	20
20	20
광양	흑산도
오전	오후
8	8
0	20
20	20
20	20
제주	
자외선지수	
06시~09시	낮음
09시~12시	낮음
12시~15시	낮음
15시~18시	낮음
생활지수	
06시~09시	초미세먼지
09시~12시	미세먼지
12시~15시	식중독
15시~18시	피부염
주간날씨	
27일(토)	28일(일)
오전	오후
6	6
-2	4
6	6
10	11
20	20
30	30
20	20
20	

## 프로배구 ★들의 축제, 내일 인천서 팡파르

‘올스타 유니버스’ … 팬 이벤트 다채  
야스민 서브퀸 100km 신기록 도전  
오지영, 베스트 리베로 테스트 출전

프로배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27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에서는 오지영, 박정아, 야스민이 출전한다.

‘올스타 유니버스’가 슬로건으로 결정된 이번 올스타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로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올스타전은 K-스타와 V-스타 2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남자부 K-스타는 대한항공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 V-스타는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여자부 K-스타는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이 맡으며 AI페퍼스가 속한 V-스타는 흥국생명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이 맡는다. 각 팀 사령탑은 3라운드 남녀부 1, 2위 팀 감독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남자 K-스타 팀 감독은 리그 1,2위인 우리카드와 삼성화재가 모두 V-스타에 속해 3위인 대한항공 틸리카이넨 감독이 선발됐다.

경기 운영 방식도 작년 올스타전과 크게 달라졌다.

세트당 15점씩 1·2세트는 여자부로, 3·4 세트는 남자부로 구성됐던 작년과 달리, 세트당 21점 1세트는 남자부, 2세트는 여자부 총 2세트로 경기가 진행된다.

1세트 종료 후엔 V-리그 올스타전의 오랜 전통이자 시그니처 이벤트인 ‘도드람스파이크 서브킹&퀸 콘테스트’가 차례로 이어진다. 구단별 남녀부 선수 각 7명이 모여 최고의 스파이크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스파이크 서브킹 콘테스트 남자부엔 마테이(우리카드), 임동혁(대한항공), 바아르사이한(OK금융그룹), 요스바니(삼성화재), 임성진(한국전력), 허수봉(현대캐피탈), 흥상혁(KB손해보험)이 출전한다. 여자부에선 정지윤(현대건설), 정운주(흥국생명), 실바(GS칼텍스), 전수민(IBK기업은행), 메가(정관장), 문정원(도로공사), 야스민(AI페퍼스)이 나설 예정이다.

문성민(현대캐피탈)이 2016-2017시즌 세운 남자부 기록 123km를 깨는 기록이 올해 나올지 두고 볼 점이다. 여자부에선 2013-2014시즌 외국인 선수 카리나(IBK기업은행)가 세운 100km 이 최고 기록이다.

또 작년 올스타전에 이어 올해에도 ‘포카리스 웨트 베스트 리베로 콘테스트’가 진행된다. 루헤이(한국전력), 박경민(현대캐피탈), 임명숙(한국도로공사), 오지영(AI페퍼스)이 참여하며, 날 아오는 서브를 안정적으로 리시브해 배치된 바구니에 공을 많이 넣는 선수가 우승하게 된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선수들의 국적이다. 루헤이(일본), 바아르사이한(몽골), 마테이(슬로베니아), 레오, 요스바니와 실바(이상 쿠바), 메가(인도네



프로배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27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에서는 오지영, 박정아, 야스민이 출전한다. 사진은 지난해 올스타전 참가 선수들의 기념사진.

KOVO 제공

시아), 야스민(미국), 폰폰(태국) 등 한국을 제외한 총 8개국 출신 선수들이 모인다.

이번 올스타전에 생애 처음으로 출전하는 선수들도 주목해 볼만 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얼굴을 비춘다.

주인공은 삼성화재 김준우(00년생), 우리카드 한태준(04년생), GS칼텍스 김지원(01년생), 한국도로공사 김세빈(05년생)이다.

삼성화재의 미들블로커 김준우는 직전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V-리그에 등장,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선수상까지 거머쥐며 유망주로 속망받았다. 기대에 보답하듯

이번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지명으로 데뷔 첫 시즌을 보내는 중인 한국도로공사의 미들블로커 김세빈 역시 V-리그에 깊은 인상을 새기고 있는 영간이다. 데뷔와 동시에 주전 미들블로커로 거듭난 김세빈은 블로킹 7위, 속공 14위에 올라 있다.

외국인 선수의 활약 역시 올스타전에서 주목할 요소 중 하나다. 우리카드 마테이는 이번 시즌 남자부 외국인 선수 7명 중 유일한 V-리그 새내기다.

V-리그 경험이 없다는 우려와 달리 현재 592 점으로 득점 4위, 세트당 평균 0.38개로 서브 3위에 오르는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 요스바니도 올스타전 첫 출전을 앞두고 있다. 18-19시즌, 19-20시즌, 20-21시즌, 23-24시즌 총 4번의 V-리그를 경험한 요스바니는 현재 669득점, 세트당 평균 0.52개 서브로 공격수의 상징과도 같은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자부 외국인 선수로는 GS칼텍스 실바와 AI페퍼스 야스민이 등장한다. 신입 외국인 선수 실바는 701득점, 46.26% 공격성공률, 세트당 평균 0.37개의 서브 등 각종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어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이 완료된 야스민 역시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등장한다. 야스민은 21-22시즌, 22-23시즌 차례로 라운드 MVP에 선정될 만큼 겸증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기자 leporter5125@mdibo.com



이제운은 25일 강원도 횡성의 웨리힐리파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결승에서 96점으로 금메달을 땄다.

## “광주·전남 다문화 야구꿈나무 모여라”

KIA, 내일 함평서 유스베이스볼 캠프 회차별 1박2일 … 다문화 중·고생 참가

**TIGERS**  
2024 BASEBALL CAMP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27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야구체험캠프인 ‘2024 KIA타이거즈유스베이스볼캠프’를 실시한다.

27일부터 3월3일까지 회차별 1박2일로 총 다섯차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총 28명의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캠프 첫 날인 27일 함평챌린저스 필드에 집결해 코칭스태프와 상견례를 하고 장

비지급 등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이후 챌린저스필드의 시설을 둘러보니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5주간의 캠프는 기초체력훈련, 수비훈련, 기술훈련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마지막 5주차에는 자체 흥배전을 치를 예정이다.

특히 윤해진 코치 등 퓨처스코칭스태프가 직접 운동을 지도할 예정이며, 평고, T배팅 등 선수단과 동일한 훈련 체험기회가 제공된다.

KIA관계자는 “참가자 전원이 챌린저스필드에서 마음껏 뛰놀며 좋은 기억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야구에 대한 관심을 더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기자 leporter5125@mdibo.com

## 여자축구 지소연, ‘세계 최고’ 미시애틀 입단

내년 시즌까지 계약… “검증된 승자”

한국 여자축구의 간판스타 ‘지메시’ 지소연이 세계 최고의 무대로 손꼽히는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시애틀 레인FC에 입단했다.

시애틀 구단은 25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소연과 2025시즌까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의 레슬 갈리모어 단장은 “지소연과의 계약은 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로라 하비 감독은 지소연을 두고 “검증된 승자”라고 평가했다.

시애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소연의 업적도 소개했다. 지소연은 2011년 일본 고베 레오네사에서 프로로 데뷔한 뒤 2014년 헬시 위민으로 둑지를 옮겨 8시즌을 뛰었다. 2014년 한국



선수 최초로 임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에 진출해 리그 올해의 선수와 P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소연은 첼시에서 210경기에 출전해 68골을 넣으며 리그 6회, FA컵 4회 등 총 13번의 우승에 기여했다.

첼시에서의 커리어를 마친 지소연은 2022년 WK리그 수원FC에서 국내 무대에 데뷔했다. 2023년 수원을 향해 청주FC로 이적해 7차례 우승에 기여했다.

구단 관계자는 “수원 FC와 이적료 합의를 맺쳤다”고 설명했다.

뉴스

## 광주테니스협 “4월 광주오픈대회 성공”

정기이사회 … 김성남 회장 등 참석

광주테니스협회는 지난 24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2024년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4년 사업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성남 광주테니스협회장을 비롯해 이사 20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2023년 감사 결과보고와 2023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종목단체 규정 변경(안), 행정 관리규정 및 대회일정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광주테니스협회는 이날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 텔린저 테니스 대회 운영을 맡아 성공적으로 개최한 입장모, 김금희 부회장에게 공로패도 수여했다.

이제기자 leporter5125@mdibo.com

## 스노보드 이채운, 강원2024 男 슬로프스타일 金

06년생 한국 스노보드 간판  
하프파이프 대회 3관왕 시동

**GANGWON 2024**  
한국 스노보드 ‘간판’ 이채운(수리고)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자신의 첫 종목인 슬로프스타일에서 우승했다.

이채운은 25일 강원도 횡성의 웨리힐리파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결승에서 96점으로 금메달을 땄다.

쇼트트랙 남자 1천500m 주제희, 봄슬레이 남자 모노복 소재활용에 이어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3번째 금메달이다.

2006년생인 이채운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

피 때 한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로 성인 동계올림픽에 나섰던 한국 스노보드 간판이다.

지난해 3월에는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역대 최연소(16세 10개월)로 우승했다. 이는 한국 선수가 스카이-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딴 첫 금메달이다.

이번 시즌에는 지난달 월드컵 하프파이프에서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다.

하프파이프가 주 종목인 이채운은 이번 대회 자신의 첫 종목인 슬로프스타일에서 금메달을 따며 대회 3관왕에 시동을 걸었다.

이채운은 28일 벽에어, 2월1일 하프파이프에서 메달 사냥을 이어간다.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은 다양한 기물과 점

프대로 이뤄진 코스를 통과하며 높이, 회전, 기술, 난도 등의 기준에 따라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종목이다.

모든 출전 선수가 예선에서 1~2차 시기 연기를 펼쳐 상위 10명이 결승에 올라 3차례 시도로 메달을 다룬다. 평균이나 합산 없이 각 시기에서 획득한 점수 중 최고점으로 순위를 가린다.

예선 7위(58.50점)로 결승에 오른 이채운은 결승 3차 시기에서 가장 높은 96점을 기록, 캐나다의 엘리 부샤르(90점), 프랑스의 로망 알레망(89.25점)을 따돌렸다.

남자 슬로프스타일에 함께 출전한 이동현(시흥파마고)은 예선 23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뉴스



2024  
**신세계설맞이**

가까운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명절 보내세요.

1.22 - 2.12



**SHINSEGAE**

신백선물관  
바로가기

